KOICA에서 발간한 책들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한국국제협력단

2012. 9. 5 (예원기획)

국제개발협력분야를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입문서적



해외봉사 바로 알고가기

한국국제협력단

2012. 7. 20 (파이카)

해외봉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바람 직한 접근법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 낸 해외봉사 가이드북



꿈꾸는 개발협력? 꿈밖의 현장!

한국국제협력단

2013. 4. 26 (한울)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고민을 솔직담백하게 담은 현장활동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실천, 해외봉사활동

김병관

2011. 11. 21 (시나리오친구들)

해외봉사 성격과 원칙, 현지생활에서 봉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제시한 KOICA 해외봉사 종합지침서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한국 개발교육의 지평을 열며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ODA교육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cademy

발 간 등 록 번 호
11-B260003-000215-01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이상백, 박수연 지음
KOICA ODA교육원 엮음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한국 개발교육의 지평을 열며

이상백, 박수연 지음
KOICA ODA교육원 엮음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ODA교육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cadem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프로젝트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NGO 지원,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koica.go.kr

ODA교육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cademy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cademy, IDEA

KOICA ODA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교육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dea.koica.go.kr

지은이

이상백(李相佰)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학사
-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 전공 석사
- KOICA 입사 후 재난복구지원부, 민간협력팀, 팔레스타인 주재원 역임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파견 전문위원
- 현(現) KOICA 전략기획팀 과장

박수연(朴修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학사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전공 석사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세부전공 : Economic & Political Development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위촉 연구원 역임
- United Nations, DESA, DAW & Earth Institute(Director : Prof. Jeffrey D. Sachs) 인턴 근무
- 현(現) KOICA ODA교육원 전문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한국 개발교육의 지평을 열며



Contents

프롤로그

1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기관 및 학교 Year 2009

01_영국

- 영국에 도착하다 010
- 영국 중부도시 쉐필드 개발교육센터 DECSY 011
- St. David Secondary School 개발교육 수업현장 참관 016
- 영국 동북부 개발교육 센터의 거점기관 OWNNE 019
- Global Dimension 컨퍼런스 참가 020
- 우리에겐 축구팀으로 유명한 맨체스터 대학 둘러보기 026
- 영국 개발교육의 산실 개발교육협의회 DEA 028
- 개발 컨설팅 회사 Triple Line Consulting Ltd 033
- 세계 최대 개발 NGO Oxfam GB 본부 038
- 옥스퍼드의 Oxfam 가게와 서점 043
- 영국 런던 대학 교육대학원(IOE) 개발교육연구센터 046
- Oxfam 런던 오피스와 영국 국제개발부 DFID 052

02_아일랜드

- 아일랜드에 도착하다 057
- 아일랜드 최대의 NGO 단체 Concern Worldwide 058
- 더블린 시내 한복판의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 062
- 아일랜드 개발교육협의회 IDEA 065
- 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날 067
- 개발학과로 유명한 영국 서섹스 대학을 끝으로 068





2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 및 실행 그리고 교훈 Year 2013

01_영국

○ 국제개발사회의 최신 트렌드를 접하다 074
○ 정권변화에 따른 영국 개발교육 정책의 새로운 흐름 076
○ 영국 개발교육의 가장 큰 변화, DAF 체제에서 GLP 체제로의 전환 082
○ 영국 개발교육 확산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088
○ 영국 개발교육의 목표와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 092
○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 개발교육의 위기이자 기회 097

02_아일랜드

○ 홍보부서와 개발교육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103
○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 107
○ 통계가 아닌 스토리 108
○ 아일랜드의 원조 정책 109
○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정책 112
○ 지속가능성, 자율성, Active Learning 그리고 M&E의 강화 115
○ 양질의 개발교육을 위한 국경을 넘어선 파트너십 117

3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의 한국 적용 및 나아갈 길

에필로그

부록 1. 해외 개발교육기관 개요
부록 2. 개발교육 자료 및 정보 관련 웹사이트
부록 3. Irish Aid의 '우리는 왜 원조를 하는가?'
약어집

프롤로그 

대학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개발협력 분야에 들어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때만 해도 국제개발협력이니 ODA,[1] MDGs[2]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 원조기관인 KOICA와 KONICA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적어도 국제정치나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나 월드비전(World Vision),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같은 NGOs 단체의 이름과 활동이 나름대로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

5년 전인 2008년 말 내가 근무했던 KOICA 민간협력팀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역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바로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말 그대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지구촌 빈곤의 문제를 비롯한 환경, 여성, 개발, 아동, 보건, 교육, 이주, 다문화 등 지구적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새로 시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학창시절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가며 사업을 집행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그 첫 해, 전국의 17개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과목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20개 단체에서 국제개발협력 또는 지구촌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 워크샵, 포럼, 콘서트,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실시되면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인기를 끌며 수많

1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2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은 대학과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2010년 "ODA교육원"을 탄생시키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실 이 글은 내가 처음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2009년 여름 약 40여 일 동안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육현장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적은 일기형식의 글이다. 처음부터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한국에는 없는 지식이어서, 조금씩 기록해 놓았던 것들이 이제 내 컴퓨터 밖을 나와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아주 아카데믹한 글도 아니고 순전히 느낀 점들을 적은 수필 형식의 글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한 행정적 보고서 형식도 아닌, 아마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조금씩 섞여있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다. 처음에는 이 글을 책으로 출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내 뒤를 이어서 KOICA ODA교육원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 연구원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개발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내가 갔었던 영국과 아일랜드를 이어서 다녀오면서 최근의 많은 이슈들을 보완해주어서 함께 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1부「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기관 및 학교(Year 2009)」에서는 4년 전 내가 다녀온 영국과 아일랜드의 개발교육기관과 학교 소개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고, 2부「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 및 실행, 그리고 교훈(Year 2013)」에서는 박수연 연구원이 두 나라 개발교육의 정책 및 실행, 그리고 메커니즘, 전략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고 전달하였다. 이를 토대로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개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안을 담아 함께 구성해 보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다. KOICA 김영목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2009년 당시 민간협력팀장이었던 도영아 부장님, ODA교육원 손성일 팀장님(前), 김준모 팀장님(現) 등 동료 직원들,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항상 지켜봐주고 때로는 나보다 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는 아내 박유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준서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사랑하는 딸 세린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나라 개발교육의 활성화와 글로벌 시민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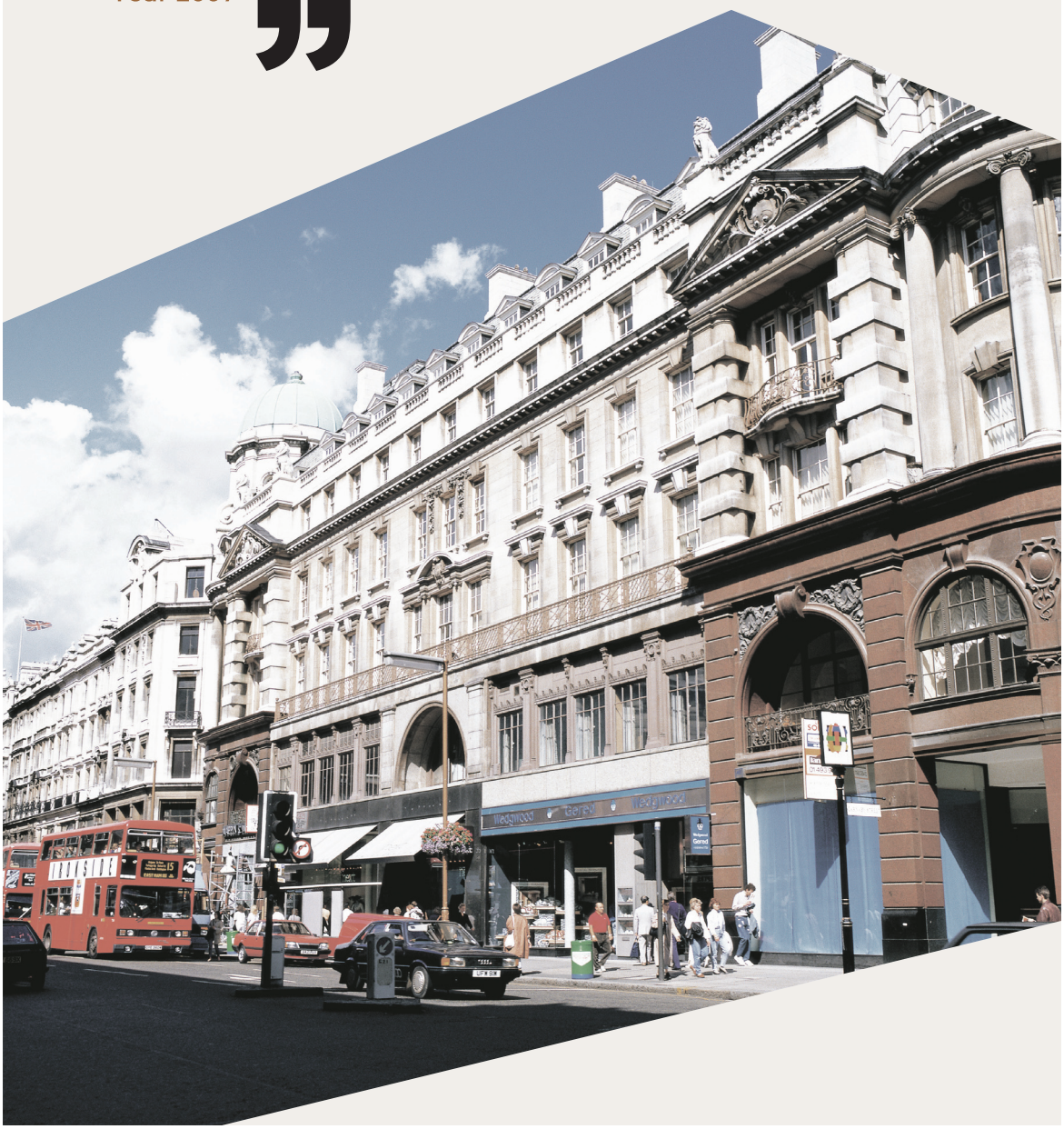
2013.10월 저자 이상백



1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기관 및 학교

Yea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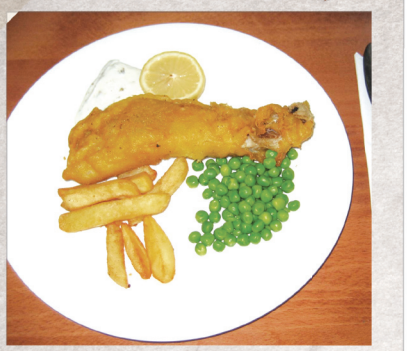


01_영국

영국에 도착하다



처음 영국을 방문한다는 설렘, 그리고 이번 연수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국 히드로(Heathrow)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몇 년 전 미국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뭐랄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느낌. 이제 세계 어딜 가나 우리 인천공항만한 곳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대학동기인 경연이가 고맙게도 마중을 나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인터넷으로 예약해 둔 호텔(Travelodge)에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 허기가 느껴졌다. 영국에서의 첫 번째 식사라 뭘 먹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식당인 것 같았다. 친구들 생일잔치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우리 한국의 문화와 비슷해 보였다.



fish & chips

다음날 아침. 영국 이곳저곳을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부산을 떨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직 못 다한 호텔 예약을 마무리 짓고 바로 빅토리아(Victoria) 역으로 향했다. 오늘 점심으로 고른 메뉴는 영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먹는다는 Fish & Chips. 맛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다.

우연찮게도 빅토리아 역 근처에는, 영국여행 책



자에서 봤던 명소가 많이 있었다. 우선 가장 가까워서 찾아간 곳이 버킹엄(Buckingham) 궁전. 빅토리아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관광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11시에 위병 교대식이 열린다는데 조금 늦어 아쉽게도 못 보고 말았다. 버킹엄 궁전 바로 앞에 있는 빅토리아 동상 앞에서 사진을 좀 찍고 제임스 파크(James Park)를 지나 빅벤(Big Ben)과 국회의사당을 둘러봤다. 제임스 파크는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너무 평화스럽고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 우리나라 용산 가족공원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 규모와 아름다움은 족히 비교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본 빅벤과 국회의사당은 그 화려함과 정교함에 매료되어 버렸다. 뾰족하게 올라온 조각상 속에 그 숨결과 고귀함이 어찌나 느껴지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 본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영국 중부도시 쉐필드 개발교육센터 DECSY

첫 주말 동안의 런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를 가지고 쉐필드(Sheffield)로 향했다. 브리트레일(Britrail) 표를 사온 덕분에, 생각보다 영국에서 기차 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브





리트레일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무 시간대에나 타면 되는 자유이용권으로, 영국 여행객에게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다. 영국 기차는 우리나라의 KTX 정도로 생각보다 깨끗하고 빨랐다. 지방여행을 많이 다닐 사람에게는 기차여행이 낭만도 있고 빠르고 좋은 것 같다. 즐거운 기차여행 덕분에 쉐필드에 무사히 도착.

오늘은 드디어 DECSY라고 하는 영국 쉐필드 개발교육센터(Development Education Centre, DEC)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어젯밤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알아놓은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약간의 설렘과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있을 때 생기는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건물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니, 한 여성분이 나와서 맞이해 주었고, 미리 연락을 하고 갔던 Rob은 다른 사람과 인터뷰 중이었다. 생각보다 DECSY는 작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하나의 큰 단독 건물을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한 건물 내 사무실 2개와 회의실 2개를 쓰고 있었다. 그래도 아담한 사무실에는 국제개발과 관련된 교육용 교재가 잔뜩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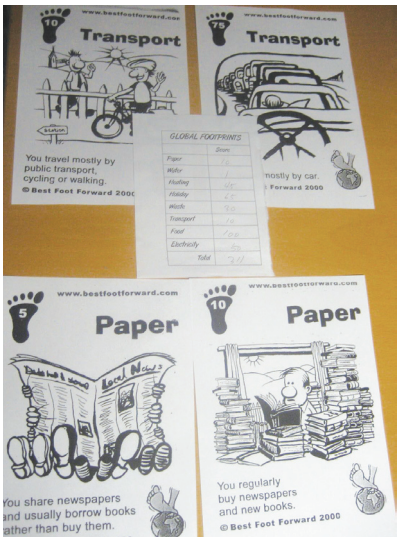
곳을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앉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있으니 Rob이 와서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좁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바로 오늘 교사 미팅에 강사로 온 Lasion이라는 분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분 딸이 5월에 한국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가서 지금 대구에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가 참 반가운 나머지 바로 이메일 주소를 주고 받으며 아주 친한 척 법석을 떨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딸에게 한 번 연락해 보라고 한다. 세상도 좁지.

Lasion 아줌마 선생님의 진행으로 오늘의 교사 모임이 시작되었다. Lasion 선생님 외에 쉐필드 지역의 학교 선생님 다섯 분과 Rob, 그리고 내가 함께 참가했다. 내용은 영국 리즈(Leeds) 개발교육센터에서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인근 지역 선생님들에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에게는 낯설기만 한 새로운 교수법이 참 재미있었고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 이주(Migration)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수업 방식은 이랬다. 여러 국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종이를 수업시간 전에 교실 여기저기에 숨겨놓고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 종이를 찾아서 찾은 사람에 대해 각자 파악한 바를 서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한 아이가 찾은 종이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다른 아이가 찾은 종이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씩 자



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교육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간은 학생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본인의 삶이 얼마나 지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침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다면 10점, 자동차를 타고 등교했다면 75점, 책이나 신문을 나누어서 보면 5점,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서 보면 10점.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적으면서 총점을 구해 내가 얼마나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측정해 보는 시간이었다. 총점이 낮을수록 좋은데 나는 총 311점을 기록해 별로 지구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나와 좀 쑥스러웠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estfootforward.com에서 각 점수와 평가지표를 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자기평가표 'Self Evaluation Framework(SEF)'를 개발해서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Kit)를 보급하는 시간이었다. 리즈 개발교육센터와 Oxfam 등이 함께 개발한 이 지표는 꽤 객관성이 있어 보였고 특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자세한 자료는 리즈 개발교육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leedsdec.org.uk/) 알고 보니 Lasion 선생님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책까지 쓰는 개발교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언젠가 기회

가 되면 한국으로 모셔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쉐필드는 금요일에 있을 컨퍼런스 때 다시 오기로 하고, 이제 달링턴(Darlington)이라는 곳을 거쳐 미들즈브러(Middles-brough)로 향했다. 미들즈브러에서는 개발교육 센터의 Hilarie와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해 고생을 조금 했다. 알고 보니 미들즈브러 역사의 출입구가 두 개였나 보다. 근처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핸드폰을 빌려 통화 후 간신히 Hilarie를 만났는데, Hilarie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다. 왜 나는 영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백인을 생각했던 걸까? 내 스스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종과 종교 등과 관련된 많은 편견을 깨는 것일 텐데, 나부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Hilarie는 9년 전 토고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온 뒤, 난민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현재 미들즈브러에 있는 Teesworld Education Center 프로젝트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Hilarie는 자신의 동생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사실 기대하지 못한 초대에 조금 놀랐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초대에 응했다. Hilarie 동생의 집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식구가 살기에는 아담하니 괜찮았다. Hilarie의 동생이 오랜만에 한국 사람이 왔다며 쌀 밥에 중국식 고기 요리를 직접 만들어줘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

St. David Secondary School 개발교육 수업현장 참관



오늘은 중·고등학생 개발교육 수업에 참관하는 날. 아침 일찍 Hilarie가 숙소로 마중을 나와주었다. 학교 수업이 오후에 있어 오전에는 Teesworld에 들렀다. 알고 보니 Tees는 영국 동북부 5개 타운을 포함하는 이름이고 Teesworld One World Center(TOWC)는 그 5개 타운을 관장하는 개발교육센터였다. TOWC에 들어가니 이전에 연락했던 Naomi와 Kapp라는 여자 직원이 환영해 주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반갑고, 또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었다. Hilarie에게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고 잠시 TOWC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름대로 깨끗하고, 자료들이 잘 정리·분류되어 있어 보기 좋았다. 자료들은 Human Right, Fair Trade, Development, Migration 등으로 주제별 분류,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으로 지역별 분류, 그리고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DEA), Oxfam 등 기관별로 나누어 놓아 총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쉐필드의 DECSY와 약간 겹치는 자료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잠시 후 Hilarie가 수업하는 학교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Hilarie의 친구인 Jorney를 태우고 수업에 사용할 아프리카 드럼들을 잔뜩 차에 실었다. 오늘 수업은 우리나라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음악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시작되고(삐~~ 하는 종소리가 나는 게 한국의 학교와 비슷하다.) 조금 있으니 학생들이 들어왔고, 학생 수는 세어보니 한 반에 약 10명 정도 되었다. 중학교





정도 되는데도 영국 학교 수업은 우리나라 대학생 만큼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Hilarie는 Jorney와 나를 소개한 뒤 학생들에게 지구본 위에 손가락으로 한 국가를 짚어보고, 자기가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유도했다. 어떤 학생은 영국, 또 어떤 학생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등 저마다 다양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촌스럽고 수줍어하는 아이도 있고 약간은 겉멋이 들어있는 학생도 있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것 빼고는 한국 중학교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Hilarie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전통 북(드럼)을 쳐보도록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한 후 나중에는 다 같이 연주해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문화와 음악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지리(Geography)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이슈를 가르치기 위해 미들즈브러 개발교육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리 시간은 단순한 지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처럼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후 Hilarie와의 대화는 국제개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Hilarie는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Hilarie에 따르면,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예산은 많지만, 그것을 직접 운용할 사람이 적어 Triple Line Consulting Ltd.(TLCL)와 DEA에 용역을 주어 개발인지(Development Awareness)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TLCL과 DEA로 분리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인한 폐해, 각 개발교육 센터의 모금(Fundraising) 문제 등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과도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물론 영국은 각 지역마다 개발교육 센터가 운영되는 등 개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천지 차이가 나긴 했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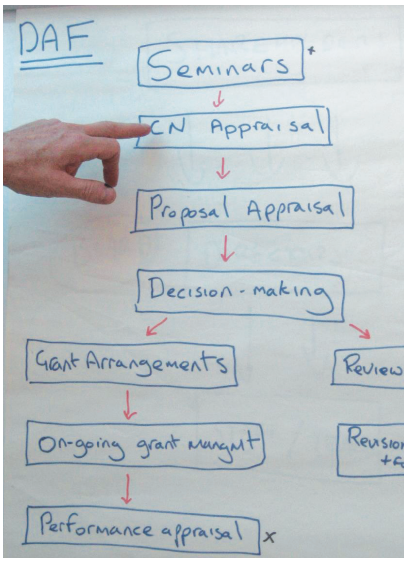
Hilarie와의 대화 후에는 Naomi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미들즈브러에서 차로 30분 쯤 걸리는 곳이었는데, Tony Blair 총리의 고향으로 유명한 동네라고 한다. Naomi 집 방문은 영국의 전형적인 가정과 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Naomi 집에 가니 3명의 자녀들이, 낯설고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손님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지 약간 수줍게 인사를 했다. 14살 Hannah, 11살 Alex, 9살 Nataya. Alex는 나에게 북한과 남한 중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진짜 개고기를 먹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유럽 학생들에게 한국은 미사일 문제와 개고기 문제가 가장 궁금하고 인상적인가 보다. 내가 남한에서 왔다고 하니 미사일 문제는 누그러진 것 같았으나, 개고기 문제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1살 꼬마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 어느 나라든 꼬마 녀석들은 참 귀여운 것 같다. 나는 식사 후

에, Naomi와 Alex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했다. 유럽 작은 시골마을의 아름다움이랄까. 한국의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한가로운 여유가 참 좋았다. 그렇게 Naomi 집에서의 식사와 대화,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영국 동북부 개발교육센터의 거점기관 OWNNE



오늘은 어제 다 듣지 못한 TOWC의 사업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마침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One World Network North East(OWNNE)에서 한 분이 와 계셨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영국의 경우 각 지역에 개별 개발교육센터들도 있지만, DFID로부터 Enabling Effective Support Programme(EES)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약 £200,000 규모를 지원받은 각 지역 거점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 영국 동북부 북동지역의 경우, OWNNE가 바로 그 거점 기관이었다.



DFID에서 개발교육 관련하여 지원하는 단체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OWNNE와 같이 큰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단체. 둘째, TOWC와 같은 소규모 각 지역 개발교육 단체. 셋째 Oxfam과 같은 개별 NGO 단체, 마지막으로 그 외에 개별적인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기타 단체 등이다. 이렇듯 영국에는 성격도 목적도 다양한 개발교육 단체들이 많이 있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Hilarie와 Kapp를 통해 듣기로 TOWC는 지금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Hilari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Refugee Action Project(RAPT)'이라는 3년짜리 큰 프로젝트 하나와, Kap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Global Review' 라는 프로그램 등 두 개의 소규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란다. Hilarie와 Kapp가 동시에 하는 말은 TOWC 직원들이 너무 적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자금(funding) 문제로 또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쓰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NGO 단체의 인력부족과 자금 문제는 한국하고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Hilarie와 Kapp를 통해 영국의 개발인지자금(Development Awareness Fund, DAF) 사업의 선정과정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컨셉 페이퍼(Concept Paper)를 내서 통과가 되면 최종 제안서를 내게 되고 또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유와 함께 DFID로부터 Feedback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많은 경험을 얻었던 미들즈브러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Hilarie의 배웅을 받으며 작별인사를 했다. 언제 또 여기를 방문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일 쉐필드에서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 다시 쉐필드 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Global Dimension 컨퍼런스 참가



쉐필드로 다시 찾아온 이유는, Global Dimension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다. 컨퍼런스에서는 Global Dimension과 관련하여 교과 편찬위원회(Qualifications Curriculum Agency: QCA, 최근 QCDA로 명칭변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지방정부는 Global Dimension 교육을 위하여 어떻게 개발교육 센터나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Global Dimension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 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Global Dimension은 아래 8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1) 글로벌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Gaining the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institutions necessary to become informed, active, responsible citizens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제도를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

2)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onflicts, their impact on development and why there is a need for their resolution and the promotion of harmony

갈등의 본질 그것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왜 갈등의 해결과 조화의 촉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

3)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cial justice as an element in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mproved welfare of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개선된 삶의 수준의 요소로써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4) 가치와 인식(Values and Perceptions)

Developing a critical evaluation of representations of global issues and an appreciation of the effect these have on people's attitudes and values

지구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발전

5)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Understanding the ne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now without damaging the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훼손하는 것 없이 현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6) 상호의존(Interdependence)

Understanding how people, places, economies and environments are all inextricably interrelated, and that choices and events have repercussions on a global scale.

어떻게 사람과 경제와 환경이 상호간에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 선택과 이벤트들이 지구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7) 인권(Human Rights)

Knowing about human rights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헌장에 나타난 아동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이해

8) 다양성(Diversity)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differences and relating these to our common humanity

차이점과 공통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먼저 발제자로 나온 QCA의 John 국장은 앞으로 Global Dimension이 모든 교과영역 영어(English), 문학(Literacy), 수학(Math), 지리(Geography), 사회(Society), 과학(Science) 과목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QCA에서는 이를 위한 교과과정을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수학책에서 나누기를 배운다고 할 때,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생산되는 초콜릿 조각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설명을 한다. 또는 영어책 본문에서 글로벌 시민과 같은 이슈를 통해 영어를 배우게 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Global Dimension에 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변경된 교과과정은 2010년부터는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DFID와 QCA, 아동교육가족부(Department Children, School and Family, DCSF)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과과정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과 그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솔직히 우리의 경우, 아직 교육부,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KOICA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이 그동안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오지 못한 게 사실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나의 이번 경험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는 요크(York) 지역 의회에서 나온 여자 분이 요크 지역에서는 Global Dimension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는 많은 학교들이 지역 개발교육

센터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방자치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 하기도 하는 등 Global Dimension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나름대로 국제화 ·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단순한 국제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협력체계 또한 중앙정부, 학교, NGO, 개발교육센터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체계가 아닌 개별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의 국제화 교육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마지막으로 열린 워크샵에서는 리즈, 요크, 남 요크셔, 훌 4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Global Dimension 교육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2가지 워크샵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요크와 리즈 지역 워크샵에 참석했다. 먼저 요크 워크샵의 경우, 자신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주로 Citizenship 교육을 위주로 발표했다. 먼저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뒤 옆 사람과 두 명씩 짝지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그리고 소개받은 옆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소개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참석한 UNHCR 안전 교육에서도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학교에서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녹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이 인격적인 사람이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요크의 워크샵은 Unicef에서 나온「인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 가방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당장 집에 재난이나 무슨 일이 생겨서 꼭 챙겨가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자기는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적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카드에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각자 물이나 성경책 등의 그림 카

드를 골랐다. 이 교육의 중점은 모든 사람들이 Water, Food, Electricity, Shelter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리즈 지역에서 실시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여기서는 School Linkage라는 단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영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국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단체가 참 많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단체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요크에 있는 학교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일이었다. 서로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펜팔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에 대해 알게 하고 보게 하며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워크샵에서 각 선생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수업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종료된 후 진행된 질문시간에 어떤 교사 한 분은 QCA에 Global Dimension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과정이 변화할 경우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참 필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QCA에서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각 지역 당국과 개발교육 센터들을 통해서 먼저 교사들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 TOT)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만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Global Dimension에 있어 교과 편찬위원회, 국제개발부, 여성가족부, 개발교육 센터, 학교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다음 일정을 향해 이번엔 맨체스터로 향했다.

우리에겐 축구팀으로 유명한 맨체스터 대학 둘러보기

오늘은 맨체스터에서의 둘째 날이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이자, 영국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다.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통화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아쉬움을 달래고, 어제 미처 못 본 맨체스터를 좀 둘러보고자 짐을 싣고 나섰다.

택시에 올라탔더니 택시기사가 어디 가냐고 묻더니, 다음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다. 한국에서 왔고 여행 중이라고 답한 뒤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18년 전에 영국에 와서 살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5년 전 파키스탄에 갔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영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 파키스탄에 가보았다는 사실이 신기한지 택시 기사가 엄청 반가워한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내가 "쌀롬 알레이꿈", "진다바크 파키스탄"이라고 하니 완전히 놀랜다. 쌀롬 알레이꿈은 사실 이슬람권 어디서나 통하는 말이고, 진다바크 파키스탄은 5년 전 파키스탄을 여행할 때 외워뒀던 말인데 아마도 '파키스탄은 승리한다.'라는 뜻으로 기억한다. 5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치안사정이 안 좋아져서 파키스탄으로 피난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때 라호르에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을 갔었는데 어떤 파키스탄 사람 한 명이 국기를 들고 어찌나









크게 '진다바크 파키스탄'을 외쳐대던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 외워두고 있었다. 외워뒀던 파키스탄 말 한마디에 택시기사는 완전 친절을 베푼다.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아도 설명해 주고, 덕분에 편하게 맨체스터를 둘러볼 수 있었다.

먼저 찾은 곳은 맨체스터 대학. 영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학은 아니지만, 국제개발학 분야에서는 꽤 명성이 있는 학교다. 한국에도 개발학 분야로 몇몇 대학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맨체스터 대학이다. 맨체스터가 산업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이 개발학 분야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개발학에 있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http://www.ids.ac.uk 서섹스(Sussex) 대학
http://www.uea.ac.uk/dev/ 이스트 잉글리아(East Anglia) 대학
http://www.sed.manchester.ac.uk/idpm/ 맨체스터 대학
http://www.lse.ac.uk/collections/DESTIN/ 런던 정경대학
http://www.soas.ac.uk/development/ 런던 대학

이외에도 리즈, 요크, 브리스톨(Bristol), 버밍험(Birmingham), 러프버러(Loughborough) 대학 등에도 개발학 단과가 개설되어 있다. 영국에 있는 국제개발학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대해 찾아보고 싶으면 국제개발학연합회(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devstud.org.uk

맨체스터 대학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영국에서 개발학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꼭 들러보고 싶었다. 학교에 들어서니 1884년에 개교했다는 심벌이 크게 들어온다. 너무 많은 빌딩들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보통 서구의 많은 학교들은 단과대 별로 캠퍼스가 나뉘어 있는 반면, 맨체스터는 한 캠퍼스에 모여져 있어 그 규모가 웅장했다. 나는 열심히 개발학 단과대를 찾아가 봤다. Visitor Center에 문의하여 지도를 하나 받아 찾아간 곳은 바로 맨체스터 대학 박물관 옆의 Ruthor Hall이라는 곳이었다. 말로만 듣던 맨체스터 대학 개발학 단과대에 들어가려니 약간은 떨리기도 하고 조금은 들뜬 마음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 안내실이 있어 간단히 나를 소개하고 브로셔를 하나 받아들었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형 등을 물으러 온 것은 아니었기에, 맨체스터 대학 개발학 단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였다. 그리고 브로셔를 열심히 읽으며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영국 개발교육의 산실 개발교육협의회 DEA



오늘은 드디어 개발교육협의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와의 미팅이 있는 날.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질문지 작성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DEA의 많은 부분이 궁금했다. 그중 우선적으로 DEA가 생겨난 배경, 영국의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 다른 NGO 및 학교와의 협력, 개발협력교육 자료 등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마음이 앞섰는지 아침 일찍부터 나섰더니 너무 일찍 도착했다. 10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또 너무 아침부터 찾아가면 실례가 될 거 같아, 근처 커피숍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질문거리와 소개할 것들을 준비했다.

시간이 되어 런던의 CAN Magazine이라는 건물에 들어가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을 했던 Sejal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Sejal은 이번 나의 연수 일정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다. DEA 방문 일정을 잡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DEA 협회 게시판에 나의 방문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몇몇 개발교육센터 연락처도 주어서 초기에 기관 접촉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어쨌든 Sejal의 안내를 받아 DEA 사무실에 들어가니 Patan Sha라고 하는 개발교육협회의 협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실 협회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젊어서 큰 부담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관

심주제가 비슷해서인지 생각보다 이야기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나에게 알려줄지 약간의 부담과 궁금증이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많은 것을 공감하게 하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었다. 대략 2시간 동안 DEA 활동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주고받은 내용들과 DEA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01 DEA 면담자료

1. DEA는 언제 시작되었나?

1993년에 시작되었고 그때는 개발 NGO가 주축을 이루었다.

2. DEA의 주 역할은?

1) Policy Making(DFID, DCFS와 협력)

2) Making Materials(책, 뉴스페이퍼 등 발간)

3) Practice(E-mail, Bulletin Board, Global Dimension 웹사이트 운영)

3. DEA 구성 멤버 기관은? 총 150여 개 기관

1) 개발교육센터 : 약 45개 기관 ex) TOWC, African Initiative

2) NGO : 약 100개 기관 ex) Oxfam, Save the Children

3) 기타 기관

4. DFID의 DAF 담당부서는?

DFID Communication Division Outreach and Stakeholders Relation Team

5. DAF가 Major Grants와 Mini Grants로 나뉜 이유는?

DAF Major Grants와 Mini Grants는 규모면에서 다르다. Major Grants는 £10,000~£100,000을 다루고, Mini Grants는 £10,000 이하를 다룬다. 처음에 왜 분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DEA는 Mini Grants를 담당하며, 주로 현장에 밀착한 사업을 담당한다.

6. DEA와 TLCL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팅을 갖는다.

7. DAF Mini Grants 2008~2009 지원 제안서와 선정 제안서는?

2008~2009 Round에는 91개 중에서 10개만 선정이 되었고, 2009~2010 Round에는 78개 중 24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8. 선정기준 Screening System

Assessment Panel이라고 하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9. DEA 예산규모는? £850,000

10. DFID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은?

DFID로부터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1년에 £400,000씩 재정지원을 받는다.

11. 영국 NGO 협의회

영국에는 BOND라는 NGO 협의체가 있고, 따로 개발협력교육을 담당하는 협의체인 DEA가 있다. 주로 BOND는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DEA는 국내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이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12. 지역거점단체를 위한 지원(Regional Support(EES))에 대한 설명

EES는 약 7년 전에 시작되었고, 각 지역별로 1개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13. EES 지원규모는?

총 £1.9 Million이고, 각 기관에는 약 £200,000씩으로 주어지는데 지역마다 동일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

14. Regional Support와 Local Support의 중첩 가능성은?

Regional Support는 Local Council, NGO 등과 함께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Local Support는 주로 학교와 직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15. Ipsos MORI와 DEA 관계는?

Ipsos MORI는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DEA에서는 주로 이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6. DEA 회원 가입 절차는?

DEA는 개발교육과 관련된 어느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다. 단체 규모에 따라 약간의 가입비는 있다.

17. 개발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법은?

DFID에서도 모든 프로젝트마다 사업을 평가하지는 못하고, 사업을 모아서 평가하고 있는데, 점점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다. Charity Evaluation Services라는 단체에서 평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8. DAF와 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영국은 DAF로 운영되고 있고, 아일랜드는 DEP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19. 타국의 협력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주로 유럽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교육과 관련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방문을 환영한다.

영국의 DAF에 대해서, 그리고 개발협력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또 어떤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오늘 새로 알게 된 아주 유용한 웹사이트 하나. http://globaldimension.org.uk/ 여기에는 약 1,000개의 교육자료가 주제(Topic)별,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다.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거나 NGO 담당자라면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라. 교육 자료의 부족과 갈증 문제가 오히려 자료의 홍수 속으로 빠지게 될 수 있을 테니깐.

DEA와의 유익한 면담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영국의 채링크로스 거리(Charing Cross Street). 바로 영국 런던의 서점가다. 처음 영국에 와서 3일 동안 런던 구경을 할 때 몇 번 찾아보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곳이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서점에 가서 어떤 책들이 새로 나왔는지, 혹시라도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책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채링크로스 역에서 토튼햄 커트 길(Tottenham Court Road)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런던의 서점가인데, 무척 오래된 고서적을 파는 서점부터 최근 신간을 파는 서점이 주변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고서적을 파는 서점은 아마도 몇 십 년, 좀 더 치자면 몇 백 년은 되어 보이는 서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단을 내려가면 미로와 같은 곳에 책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너무 지하 속 미로와도 시간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하도 미로와 같아서 그 속에 숨어있으면 핵폭탄이라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서적을 파는 서점 몇 개를 지나 조금 더 가다보니, 이번에는 블랙웰(Blackwell)이라는 우리로 치면 교보문고처럼 큰 대형서점이 나온다. 영국에서 나온 신간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의 관심사인 개발학 분야의 좋은 책이 있으면 조금 찾아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로운 책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시간가는 줄 몰랐다. 몇 시간을 서점에 앉아 눈여겨 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도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Joshep Stiglitz,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Joshep Stiglitz, (Fair Trade for All)
Peter Singer, (The Life You Can Save)
Thomas.L.Friedman, (The World is Flat)
Joseph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ich Bisley, (Rethinking Globalization)
Stephen C.Smith, (Ending Global Poverty)
David Held,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Roger C.Rialdell,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Hywel Williams, (In Ou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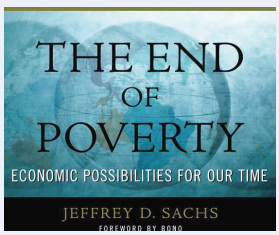
– 이건 특별히 국제개발과 상관은 없지만, 20C를 움직였던 저명한 인사들의 연설이 가슴을 뛰게 하여 눈여겨보았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책들 모두 사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어깨에 멘 가방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오늘은 이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Peter Singer의 「The Life You Can Save」 한 권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꼭 사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참고로 「The Life You Can Save」라는 책은 내가 연수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저명한 국제개발 관련 서적들을 좀 소개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는 아주 주옥같은 책들이니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 보길 권한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저널을 소개한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추천도서

주동주 편저,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
장하준, 「다시 발전을 요구하다(Reclaiming Development)」
Jeffrey Sachs,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



effrey Sachs, 「공동의 부(The Common Wealth)」
William Easterly, 「세계의 절반 구하기(White Men's Burden)」
William Easterly, 「성장 새빨간 거짓말(The Elusive Growth)」
Banerjee 외, 「Making Aid Work」
Muhammad Unus,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Banker to The Poor)」
C.K. Prahalad,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The Fortune at the Bottom of Pyramid)」
Joseph Stiglitz,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Making Globalization Work)」
Joseph Stiglitz,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Jean Ziegler,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La Faim Dans le Monde Expliquee a Mon Fils)」, 「탐욕의 시대(L'empire De la Honte)」

국제개발협력 관련 저널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and Change)
(Development Policy Review)
(Disasters)
(International Migration)
(Journal of Agrarian Change)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참조 : http://www.devstud.org.uk

개발 컨설팅 회사 Triple Line Consulting Ltd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영국의 DAF 사업에 대해, 방문과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어제는 소규모 사업(Mini Grants)를 담당하는 DEA를 방문했었고, 오늘은 대규모 사업



(Major Grants)를 담당하는 TLCL 방문이 잡혀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지하철 District Line에 몸을 실었다. 영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초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지하철보다 꽤 낡았고, 노선은 무척 많다. 처음에는 좀 헷갈렸지만, 타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똑같아서 몇 일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퍼트니 다리(Putney Bridge) 역에서 내려서 템스 강(The Thames River)을 건너가니, 한 10분 뒤 TLCL에 도착할 수 있었다.

띵동~ 벨을 누르니, 한국에서 연락이 되었던 Martin Wright이라는 건장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를 반긴다. 대부분 영국 사람들, 생각보다 반갑게 맞아주었다.

TLCL는 주로 개발 분야 사업 선정, 운영, 모니터링, 평가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개발 컨설팅 회사로, DAF 사업은 2006년부터 이 회사에서 시행해오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DFID는 1997년에 DAF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해 직접 운영을 해오다가, 인력 부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는 이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DAF 사업 외에도 DFID의 일반 시민사회 지원자금인 Civil Society Challenging Fund도 마찬가지로 이 TLCL에서 7년째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꽤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부분을 이런 회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사실 KOICA 내부에서도 운영

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NGO 단체나 관련 회사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거론되곤 한다. 'ODA 산업(ODA Industry)'이라고 했던가?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규모도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을 전부 할 수는 없기에 정부와 NGO, 컨설팅 회사, 그리고 학교 등 개발협력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Martin 씨와의 대화는 어제 있었던 DEA와의 면담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갔다. DAF 사업을 신청 받은 뒤 심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Martin 씨의 일은 바로 국가만 달랐지 바로 한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중에 Martin 씨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었고,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파일로 건네주며 호의를 보였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큰 고마움을 표했다. 너무나 한참이나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식사 때도 놓쳤지만, 우리는 인근 레스토랑에서 주린 배를 함께 채우며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꽤 가까워졌다. TLCL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연의 추가설명

TLCL은 1999년도에 3명의 컨설턴트로 시작했는데 13년 만에 21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다. DAF는 TLCL이 다루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영국국제개발부(DFID)와는 DAF 외에도 시민사회기관(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공여하는 펀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규모 $100 Million), 대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다.



02 TLCL 면담자료

1. TLCL 설립년도는? 1999년

2. TLCL에서 DAF를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계약

3. TLCL의 주요활동은?

1) Social Development
2) Economic Development
3) Monitoring and Evaluation
4) Grant Screening
5) Corporate Responsibility
6) Governance

http://www.axdc58.dsl.pipex.com/ 참조

4. TLCL의 직원경력은?

주로 개발사업 종사자나 경영정보를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5. 영국의 개발 관련 컨설팅 회사는?

개발과 관련해서 약 50개 정도의 컨설팅 회사가 있고, 이 중 약 15개 정도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DAF Major Grants와 Mini Grants 분리사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작은 규모로 NGO, 학교 등의 요청이 있어 이것을 DEA에서 담당해왔다. 본격적으로 DAF 사업이 시작되고 전문적인 심사, 모니터링 등을 할 필요가 생겨 TLCL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7. DAF 2008~2009와 2009~2010의 지원, 선정 규모는?

2008~2009는 총 109개 중에서 26개가 선정되었고, 2009~2010은 134개가 신청해서 40개가 선정되었다.

8. 사업 선정과정 및 DFID와 TLCL 역할구분은?

Screening Criteria에 따라 우선 TLCL에서 점수를 매기고 이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결과를 DFID에 보고하고 최종 선발은 DFID의 예산에 따라 지역,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9. 선정기준은 Mini Grants와 동일한가? 서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비슷할 걸로 알고 있다.

10. DAF 프로그램 종류는?

1) Primary & Secondary School에서 하는 개발교육
2) Teacher Training
3) Material 작성 및 배포
4) Media 협력(예시 : Comic Relief라는 단체는 BBC와 연계)
5) On-line 웹사이트 구축
6) 아프리카와 자매결연, 펜팔 등
7) 연극 등 퍼포먼스, 퍼레이드, 축제
8) 건축이나 디자인
9) Fashion Show
10) 공정무역 행사, 캠페인 등

11. DFID의 컨설팅 비용 지원규모는?

사업별로 Minutes of Meeting(M/M)를 구성하고 주로 3년 단위로 구성, 간접비는 약 8%이내

12. DFID와의 다른 협력은?

Civil Society Challenging Fund도 7년째 담당하고 있다.

13. DAF 사업 평가주체 및 방법은?

TLCL에서는 개별사업별로 매년 중간보고를 받고 사업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사업에 대해 평가점수를 주고 있으나 그걸로 단체 자체를 평가하거나 하지는 않고, 다음 사업 심사 시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14.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 관련 교육?

TLCL 자체적으로 M&E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가지 Martin 씨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재밌는 사실. 영국은 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결과보고 시에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Statement)은 제출하지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수증은 단체 자체에서 회계 시스템에 의해 증빙을 하면 되고, 각 단체는 이를 주로 연간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DFID나 TLCL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는 정부나 시행 컨설팅 회사가 각 단체와의 그만한 신뢰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별 NGO 단체들이 그만큼 신뢰와 투명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 우리 사회도 그만한 투명성과 신뢰문화가 쌓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최대 개발 NGO Oxfam GB 본부



잠시 런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번에는 옥스퍼드(Oxford)다. 어제는 오늘 있을 Oxfam Pete. Davis와의 면담준비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가끔 방에 앉아 자료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면 이거 영국까지 와서 방 안에만 있으려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놀러온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기회가 되는대로 시간을 내어 영국의 이곳저곳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Pete Davis와의 대화는 정말 너무나 유익했고, 너무나 생생한 개발교육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에 Oxfam에 갈 때만 해도 대화를 마치고 잠시 옥스퍼드를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와 컴퓨터 버튼을 눌렀다.

Pete Davis는 Oxfam에서 일하는 최재형 선생님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에 있는 노영선 간사님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메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친절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사실 영국 사람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메일 회신이 아주 빠르지는 않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두 사람을 빼고는 회신이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바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었다.





오늘 만난 Pete Davis는 정말 너무 친절하고 이 분야에 박식하신 분이셨다.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 이 분은, 멀리 극동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젊은 친구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신기하고 동질감이 느껴지나 보다. 사실 영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이 대게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내가 온 목적과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도와주려고 한다. 알고 보니 Pete Davis는 Oxfam에서도 개발교육 분야에 아주 정통하신 분으로, DEA의 자문위원이시며 개발교육 유럽 연합 교류프로젝트(The Development Education Exchange in Europe Project)에서도 중역을 맡고 계신 분이었다. Oxfam에서는 금년 7월부로 은퇴를 하셨고, 이제 개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이 분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모두 유익했지만, 그중에서도 영국의 개발교육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했다. Oxfam에는 1959년에 처음으로 개발교육 담당직원이 생기면서 개발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59년이면 지금보다 약 50년 전 이야기니, 영국에서의 개발교육 역사는 강산이 벌써 5번이나 바뀌기 전에 시작된 것이다. 1975년에는 개발교육센터가 버밍험 지역에 처음으로 생겨났고, 1977년에는 리즈 개발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약 5개 정도의 개발교육센터가 생겨났다. 이후 1980년에 이르면서 각 지역에서 봇물처럼 개발교육센터가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이들 각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교육센터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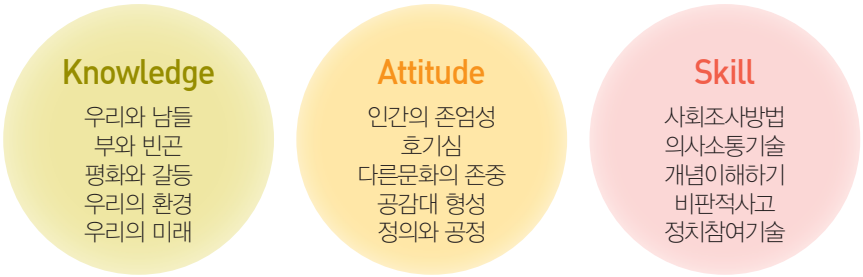
역할을 조정 · 조율하기 위한 NADEC(The National Development Company)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났으며, 1977년부터 정부는「Grants Funding for Development Education」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권은 개발교육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해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는 개발교육뿐만 아니라 개발 이슈 자체가 정부 내에서는 전혀 각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NGO들은 자체적으로 개발교육 펀드를 만들어 각 지역에 있는 개발교육센터들을 도왔는데, 그 때 참여했던 NGO가 Oxfam, Save the Children, The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 Woman & Want 등 5개 단체였다고 한다. 그때 바로 Pete 아저씨가 그 펀드를 담당하셨다며 회상에 잠겼다.

지금의 DEA는 그 전신인 NADEC과 개별 NGO들이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 1994년에 다시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7년에 들어선 노동당은 DFID라고 하는 원조부처를 설립하고 다시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DAF)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오늘 Pete 아저씨한테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국의 개발교육센터는 1994년에 생겼고, 정부는 1997년부터 DAF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최근 이야기만 알고 돌아갈 뻔 했다. 오늘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영국의 개발교육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여기서 잠깐 Oxfam의 개발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Oxfam에서는 개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Knowledge)과 태도(Attitude), 기술(Skill)로 나뉘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담은 교재들이 정말이지 너무 많아서 다 들고 오기도 힘들 정도였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oxfam.org.uk/education/gc/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Oxfam의 교재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교재들이 잘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Oxfam 개발교육의 주요내용



03 OXFAM 면담자료

Ⅰ. Oxfam 일반사항

1. Oxfam 연간 집행액은? 2006~2007 $704,530,000
2. Oxfam 재원 확보는? a) Profit from Shops b) Donation c) Subsidies
3. Oxfam 직원 규모는?
   a) 6,200 Full-time Staff b) 21,000 Volunteers c) Oxfam GB Headquarter에 600여 명 근무
4. Oxfam 주요부서는?
   a) Trading
   b) Fundraising and Supporter Marketing
   c) Campaign and Policy
   d) International
   e) Finance and Information Systems
   f) Human Resources
5. Oxfam 서점과 가게 규모는? 현재기준 698개

Ⅱ. 정부 및 타 기관과의 관계

1. DFID와의 관계 : 주기적으로 미팅, 의견교환, Advocacy
   a) Partnership Program Agreement(PPA) : 2008~2011 £27,830,000
   b) Development Awareness Fund?
   PPA를 하기 이전에는 DAF에 지원해서 받기도 했지만 이제 PPA 안에 개발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 참고로 PPA는 영국 DFID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별 지원이 아닌, 단체에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의 DFID-NGO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2.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QCA)와의 관계?

a) Regular Meeting with QCA

b) QCA 주관으로 DFID, DCSF, DEA, NGO들이 Curriculum을 위한 협의 미팅을 가진다.

3. DEA와의 관계

Oxfam은 DEA의 멤버로서 협력관계이며, Oxfam 교재와 자료들이 www.globaldimension.org.uk에서 공유된다.

4. 학교와의 관계

「Catalogues for Schools」라는 책자가 매년 35,000부 발행되고 이것이 전국 대부분 Primary & Secondary Schools에 배포된다. 수백 개 학교와 연계되어 Global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III. Global Citizenship

1. Global Citizenship 자료?

Oxfam 내에 전문 집필진들이 있다. 이들은 개발협력 분야와 교육 분야의 이론, 실제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 자료 분류기준은?

a) Age b) Field(Subject) c) Region(National)

d) Book, CD/DVD, Game e) Target Group

3. Development Education과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차이점

현재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Development Education이라는 용어와 Global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 때로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이고 있는 추세다.

4. School Speaker 제도?

약 120명 이상의 School Speaker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Oxfam 런던 오피스에서 담당하는데 2~3일 정도의 코스가 구성되어 있고 이를 수료할 때 Certificate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5. 프로그램 종류

Seminar, Workshop, Concert 이외에도 Festival, Cultural Activities, Connection between each Locals

6. 프로그램 평가

Monitoring Evaluation Learning(MEL)이라는 자체 모니터링, 평가 툴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Oxfam 가게와 서점



어제는 Oxfam에서 Pete Davis 씨와 Oxfam의 개발교육과 지구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참 유용한 시간을 가졌었다. 이어서 오늘은 Oxfam 서점과 가게들을 둘러볼 계획으로 집을 나섰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옥스퍼드 시내 한 중앙에 있는 Oxfam 최초의 가게이다. 보더 길(Boader Road)이라는 Oxfam 한 중앙에 위치한 이곳에는 문 앞에 "The first permanent OXFAM shop began trading here in December 1947" 이라고 친절히 문패가 쓰여 있다. 1947년이면 우리나라는 6·25전쟁도 일어나기 전이니 그 역사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Oxfam이 시작된 게 1942년이니 거의 Oxfam이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가게가 생겼나 보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없는 게 없다. 커피, 차, 비누, 설탕으로부터 가방, 옷, 구두, 학용품……. 거의 만물상 수준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Oxfam 샵에서 팔리는 모든 상품은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물품이거나, 제 3세계에서 공정무역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점과 가게들이 영국에만 모두 600개가 넘으며, 또 이 서점과 가게에서 판매되는 수익이 연간 2,0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작은 규모라고 무시할 것이 못된다. 또 인상적인 것은 600개가 넘는 모든 가게들이 한 명씩의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기부문화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문화까지 부럽기만 하다.

또 영국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공정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품들이 Oxfam을 비롯한 NGO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왕성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NGO 지원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차 동티모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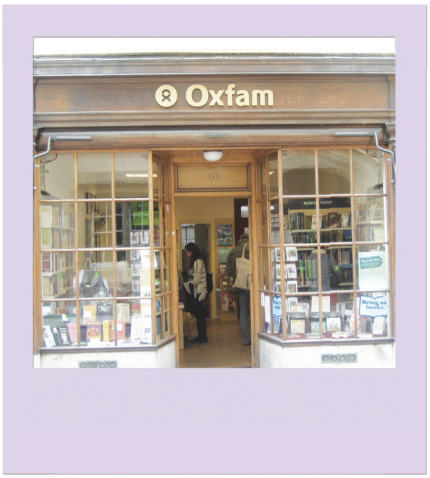




방문한 적이 있다. 그중에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 공정무역사업현장도 있었는데 그 때 만난 동티모르 아이들의 선한 눈망울이 기억난다. 또 공정무역사업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안정된 판매 적정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던 마을의 대표님도 생각이 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공정무역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산자의 합리적인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또 판매망이 안정되어 있어 생산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무역구조인 공정무역이 점차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Oxfam 최초 가게를 나와 오른쪽 코너를 살짝 도니 터넬 거리(Turnel Street)라는 곳에 위치한 Oxfam 서점이 나온다. 이 서점은 그냥 보아도 고품격의 나무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옥스퍼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서점 안에 들어가 보니 여행, 생물, 생활,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책들도 모두 기부에 의해 모아진 것들이고, 대부분 깨끗한 품질이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중에서 빈곤(Poverty) 관련 책 두권을 구입했는데 사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오히려 내가 서점에 고마워해야할 판이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약 10분 정도 지나 밴버리 길(Banbury Road)이라는 곳을 찾았다. Oxfam 가게도 가게거니와 Oxfam International 본부가 그곳에 있다 하여 한 번 가보고 싶었다. 오늘은 참 신기한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옆을 돌아보면 Oxfam이요, 한참 가다가 이쯤이겠다 싶어 내렸더니 또 얼마 안 가서 Oxfam 가게가 보인다. 내가 운이 좋은 건지 Oxfam가게가 그 정도로 많은 건지 모를 정도였다. 아무튼 밴버리 길에 위치한 Oxfam 샵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왠지 매장 안쪽에 있는 창고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매니저 분에게 나를 소개한 뒤, Oxfam의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어 어제는 Oxfam 본부에도 다녀왔다고 하니 반가운 얼굴로 들어오란다. Oxfam 샵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 여긴 정말 없는 게 없다. 헌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 구두, 유리잔, 컵, 골동품, 책, 우산 등…….



이게 모두 지역주민들이 기부해 온 것들이고 새것은 그대로 가격을 매겨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상태를 보아 헌것들은 노팅햄인지 버밍햄인지에 있는 Oxfam 중고물품 수선 및 세탁공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리하여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다시 각 매장으로 보내어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기서 처분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 매장에는 기부된 제품의 목록에 따라, 그리고 그 제품의 상표 메이커에 따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격 라벨링 표가 다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분은 4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많고 요즘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 덕분에 나에게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밴버리 길에 있는 Oxfam 샵을 나와 길을 건너면 바로 Oxfam 국제본부(International Headquarter)가 나온다. 그런데 Oxfam 국제본부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xfam 본부는 바로 어제 내가 다녀온 옥스퍼드 리피 길(Liffey Road)에 있는 Oxfam GB 본부가 바로 그것이다. Oxfam International은 말 그대로 각 나라마다 있는 Oxfam 지부들의 통계라든지 네트워크를 위해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무소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라도 Oxfam International을 방문하고 나니 할 일을 다 한 사람처럼 마음 한구석은 뿌듯하다. 오늘은 내가 방문한 3개의 Oxfam 가게와 서점을 제외하고 옥스퍼드에만 나머지 3개의 가게와 서점이 더 있다고 하며 그 규모나 품목은 비슷하다고 한다. 나중에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아일랜드에도 Oxfam Ireland에서 운영하는 가게와 서점이 있는데 아일랜드에는 총 47개의 Oxfam 가게가 있다고 한다.

영국 런던 대학 교육대학원(IOE) 개발교육연구센터



오늘은 영국 런던 대학의 교육대학원(Institute of Education, IOE)안에 있는 개발교육 전공을 담당하고, 개발교육연구센터(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DER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Dr. Douglas Bourn 교수와의 미팅이 있는 날이다.

한국에서 이번 연수를 준비할 때부터 여러 사람이 이 교수님을 만나보라고 추천을 했다. Oxfam Pete Davis도 그랬고, TLCL의 Martin 아저씨도 그랬었다. 분위기가 거의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질 정도다. 개발교육을 가지고 런던 대학 내 석사(M.A)과정을 만든 분이라고 하니 그 지식과 역량이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가? 어젯밤 자료를 준비한다고 너무 늦게 잠이 든데다가 긴장이 되었는지 늦잠을 자고 말았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눈을 떠보니 10시 5분. 이제껏 준비된 일정에서 한 번도 어그러진 일이 없었는데 머리에 망치로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했더니 넉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오늘은 다른 미팅이 없으니 시간 되는대로 오라고 한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혹여 바빠서 오늘은 어렵다고 할까봐 은근 걱정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얼른 정신을 차리고 런던 대학 교정을 찾아갔다.

수연의 추가설명

런던 대학의 교육연구소 내의 개발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인 Dr. Douglas Bourn은 20여 년 동안 개발교육 분야에 헌신해 온, 영국 개발교육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 스스로도 자신이 영국의 개발교육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는 지역의 개발교육 실행기관의 협의체인 개발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3]를 세웠을 뿐 아니라, 개발교육의 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6년에 DERC를 설립하고,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Douglas 교수를 통해서 그동안 방문한 곳에서 답을 듣지 못했던 DEA의 역사와 DAF의 발자취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Oxfam Pete Davis 씨와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지만 당시 DEA의 팀장으로 있었던 Douglas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략 DEA가 생겨난 1993년경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DEA는 크게 2종류의 기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가 바로 Oxfam, Save the Children, Christian Aid, Action Aid, CAFOD 같은 NGO 단체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가 각 지역별로 풀뿌리(Grass-root) 차원에서 생겨났던 개발교육센터들이었다고 한다. 그 둘의 만남과 연합으로 바로 DEA가 생겨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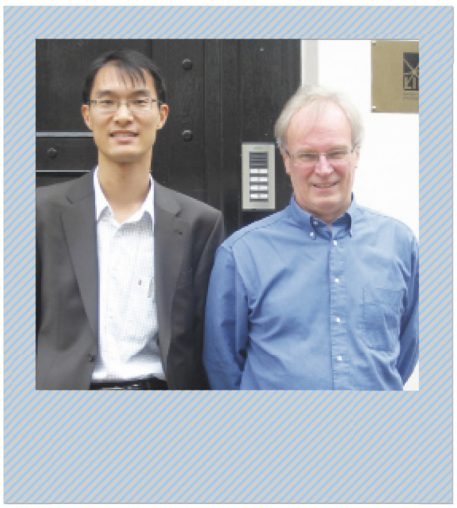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의 요청과 1997년 새로운 정권의 등장, DFID 설립 등을 계기로

3 현재는 Think Global이라고 불리고 있다.



1998년에 DAF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당시 DEA를 위주로 시작되어 오던 작은 규모의 DAF 프로그램이 예산도 늘어나고 활동 규모도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DAF 중 Major Grants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것을 처음에는 DFID에서 직접 수행해오다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006년부터 TLCL에 위탁하여 실시하여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DAF 프로그램의 역사를 듣고 있노라니,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정리가 된다. 구슬이 꿰어지듯이 앞뒤 얘기가 죽 연결이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보니 개발교육 분야로만 보면 영국의 1993년이 지금 한국의 2009년의 모습 정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영국에는 지역 자체적으로 생겨난 개발교육센터들이 많이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DEA 같은 기관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에서의 DEA 같은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조만간 한국에도 이런 개발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생겨나고 이러한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Douglas 교수는 역시 당시의 DEA 팀장님답게 영국의 영국 개발교육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 Douglas 교수와 나눈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다. Douglas 교수에 따르면 영국에서 개발교육이 일찍이 시작된 것은 첫째, NGO의 역사가 아주 깊고 강하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 생겨난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NGO단체들이 개발 활동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의 시도와 함께 외부와의 관계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가 간 혹은 개인 간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많았고, 또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들을 잘 수용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개발교육의 경우 풀뿌리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정부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이 영국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다운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발생했나 하는 이유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는데, Douglas 교수는 왜 영국에서 개발교육이 발달을 하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유익한 이야기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사이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도, 개발인지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개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그러기에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Dr. Douglas 교수와의 미팅을 마치고 잠시 런던 대학 교정을 걷고 있자니, 개발학으로도 유명한 런던 대학의 SOAS 단과대학이 나온다. SOAS는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약자로 주로 문명, 인류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하는 런던 대학의 단과대이다. 우리나라는 종합대학교의 성격이 강해 꼭 무슨 대학 무슨 단과대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국은 그냥 단과대 자체로도 유명한 곳이 있다. 런던 정경대가 그냥 LSE 자체로 유명하듯이 SOAS도 그런 예 중에 하나다. 우리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런던 대학 아시아 · 아프리카 단과대 정도지만 여기서는 그냥 SOAS로 통한다. 본관 로비를 들어가니 Reception인지, Information Center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고 SOAS에 관심이 있어 방문했다고 하니 방문증을 하나 건네주며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건네받은 방문증을 가지고 열심히 SOAS 실내를 구경했다. 3층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곳도 있어 신기했다. 물론 일본어, 중국어 등도 배우는 곳도 있었지만, 런던 대학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했다. 잠시 더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말을 하는 친구가 지나간다. 반가운 마음에 잠시 말을 걸어 내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를 소개를 하니, 그는 SOAS에서 인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허승준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비록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는 나에게 SOAS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그 친구를 통해 SOAS가 영국의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 아프리카로 파견되는 주재원 또는 사령관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었다고 들으니 좀 기분이 이상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교육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아무튼 그러한 연유로 SOAS는 제 3세계 문제와 개발학 분야에서 지식과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한다.

대화 후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도서관이 보인다. 개발학으로 유명한 단과대 도서관에는 그래도 개발학 관련 교재가 많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여권을 보여주고 일정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니 1일 출입증을 건네준다.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역시 한참이나 된 옛날 책들부터 최근 자료까지 도서가 아주 방대하다. 여기서도 내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역시나 한국 책들. 아시아 한 코너에 한국어로 된 책들도 있는데 대

부분 오래된 책들이긴 하지만 역사, 정치, 경제, 문학 관련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어 신기했다. 이제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 역시 내가 찾는 책들은 개발학 관련된 책들……. 한국에서 관련된 책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탓인지 개발학 관련된 책들만 보면 목마른 사슴처럼 반갑기만 하다. 처음에는 한두 권씩 보이던 책들이 어느 한 코너에 들어서니 완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개발학과 관련된 책들이다. 모두 리스트 업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아 그럴 수는 없었고 우선 처음에 보이던 책들만 몇 권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John Rapley, (Understanding Development - Theory and Practice in the Third World), 2007
Shivani Dharmarajan, (NGOs as Prime Moves)
Robert Chanbers, (Ideas for Development), 2005
장하준, (Reclaming Development)
Damien Kings Bury 외, (Key Issues in Development), 2005
Stephen Browne, (Beyond Aid-from Patronage to Partner), 1999
Paul Grendy 외, (Reinventing Development), 2005
Randall D.Germain & Michal Kenny, (The idea of Global Civil Society)
Philip McMICHae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2000
Trevor parfit, (The End of Development), 2002
Pete Alcock, (Understanding Poverty), 1993
Michael Lipton, (Why Poor People Stay Poor), 1997
Bernd Balkenhol,(Microfinance and Public Policy)
Erik S.Reinert, (Creating World without Poverty), (How Rich Countries Got Rich and Why Poor Countries Stay Poor)

마음 같아서는 거기 앉아서 모두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었고, 언젠가 꼭 읽어봐야지 하는 각오만을 다짐한 채 다음 장소로 또 발걸음을 옮겼다.

Oxfam 런던 오피스와 영국 국제개발부 DF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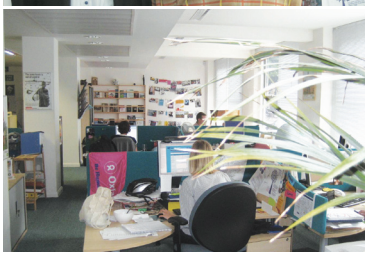
오늘은 Oxfam 런던 오피스 방문의 날이다. Oxfam 런던 사무소는 빅토리아 역 근처에 있는데, 지난번에 빅토리아 역 근처에서 숙박을 했었던 덕분에 지도만 봐도 대략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빅토리아 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니 Oxfam 런던 사무소에 도착한다. 쉽게 찾아온 덕분인지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Oxfam 런던 사무실은 캠페인 부서에 속한 팀으로, 단독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큰 빌딩의 1층을 쓰고 있었다. Oxfam의 이런 캠페인 부서는 영국에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브리스톨 총 4곳에 있다고 한다. 런던 사무소에는 Political Campaign, Media Campaign, Special Event, Youth & School Campaign 총 5개의 팀이 있으며 총 10명 정도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만난 John Maclivety 씨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Oxfam에서 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 직업을 바꾸었다고 한다. 예전보다 수입은 좀 줄었지만 Oxfam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아주 행복하단다. NGO에서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John 씨는 Youth & School Campaigner로서 주로 Oxfam과 학교와의 관계된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Pete Davis 씨가 소개를 시켜준 것 같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여기서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히 내가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처음에 계획하고 궁금했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주로 John 씨로부터는 Oxfam의 School Speaker 제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Oxfam은 각 학교에서 지구시민이나 개발과 관련한 강의요청이 오면 나가서 특강을 해주는 School Speaker라는 제도를 2006년부터 시작해오고 있다고 한다. Oxfam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학교가 24,000개나 되고, 한 달에 약 40~45건의 특강 요청이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Oxfam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과목에 해당되나 주로는 지리, 시민교육 과목이 제일 많다고 한다. 그 뒤로 역사, 영어 과목과 방과 후 과정 및 클럽활동 등에도 이런 요청이 자주 있는데, 이를 위해 Oxfam에는 약 120명 규모의 강사 풀(Speaker Pool)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Oxfam 직원, Youth Practioner, 분야별 전문가,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요청하는 학교의 요구사항에 맞춰 주로 지역과 분야를 고려하여 John 아저씨가 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School Speaker는 적어도 한 달에 1번은 Oxfam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Speaker 자격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School Speaker가 되기 위해서는 Oxfam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주로 Oxfam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 약 1년에 3~4회 정도 있고 한 번에 약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이들이 모두 School Speaker로 남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에서도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이런 Oxfam의 교육 내용들도 참고가 되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과 강사 풀 구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개발교육과 글로벌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Oxfam 사무소를 나와 버킹엄 궁 쪽으로 약 10분쯤 걷고 있었더니 영국 국제 개발부



(DFID) 건물이 나온다. 사실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니고, 말로만 듣던 DFID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실 얼마 전 TLCL의 Martin 아저씨를 만났을 때 DFID의 Cathy라고 하는 담당자를 소개받아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황이었으나, 며칠째 회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DFID는 정부기관이니만큼 그 규모도 커서 10층짜리 웅장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야 10층짜리 건물이 별로 높은 건물이 아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나라에서는 5층만 넘어도 상당히 높은 건물에 속한다. 우선 건물 사진을 찍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좀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 한국 KOICA에서 와서 잠시만 둘러보고 싶다고 하니 그 아저씨가 한국의 KOICA를 알 바가 아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나와 바깥 건물만 사진 찍고 돌아가려니 못내 아쉬움이 남아,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렸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DFID에서 DAF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층 Reception에서 Cathy라는 사람을 찾아왔다고 하니 전화를 연결해준다. 사실 이메일 수신 확인도 안 되고 해서 휴가 중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Cathy Speaking"이라며 받는다. 기대를 안해서인지 처음엔 약간 당황했지만, 이래저래 내가 누구고 무슨 일로 왔다고 설명하고 지금 로비에 있다고 하니 Cathy가 친절하게 로비로 내려온단다. 알고 보니 내가 보낸 메일은 받지를 못했다고 한다.

아무튼 Cathy도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 반갑다며 DFID 안으로 안내를 한다. 나도 말로만 듣던 DFID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Cathy였지만, Cathy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JICA는 알고 있지만, 한국의 KOICA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들어서 몰랐다고 한

다. 내심 그래도 DFID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KOICA를 잘 알지는 못해도 들어는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다. 그래도 열심히 KOICA를 설명하고 우리가 시작한 개발인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Cathy도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신기한지 열심히 듣는다. 사실 그동안 DEA, 개발교육

수연의 추가설명

국제개발의 리딩 국가인 영국은, 원조담당정부기관이 우리나라처럼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부처로 존재한다. 이전에는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안에 존재했으나, 국제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유한 Tony Blair 총리 하의 노동당 정부 시절인 1997년 독립부처로 승격된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DFID의 연간 예산은 £66억 5천만[4](2009~2010)에 이른다.



센터, TLCL, Oxfam, IOE 등을 방문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국의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윤곽이 잡히게 되어서 Cathy에게 질문할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 DFID 입장에서는 DAF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와 인력이 담당하는지, 왜 Major Grants와 Mini Grants로 나뉘어졌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 DAF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DFID에서도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의 DAF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7월 말이면 그 자료가 나올 테니 참고를 하란다.

Cathy가 속한 팀은 Outreach & Stakeholders Team으로 교육팀(Education Team)과 비교육팀(Non-Education Team)으로 나뉘어, 각각 2명과 팀장 1명까지 해서 총 5명으로

4 한화 11조 6천억 원.

구성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DFID에서 직접 DAF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인력상황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 2006년부터 TLCL과 DEA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DFID는 DAF에 대한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정책결정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Civil Society Challenging Fund와 같이 시민사회팀(Civil Society Team)에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2년 전 쯤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은 한국하고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느꼈다. 그 규모와 예산, 시행기관 등에서 차이가 나긴 했지만, 우리도 나중에는 DAF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인력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영국의 TLCL과 같은 개발 컨설팅 회사나 DEA와 같은 기관으로 위탁을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담당부서의 문제는 우리도 차후에 검토를 통해, 개발인지사업과 교육사업을 가장 잘 감당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미리 약속을 잡고 간 것도 아닌데 열심히 듣고 설명해준 Cathy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미처 계획하지 못하고 가서 브로셔와 조그만 선물도 못 주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긴 했다. 또 실내에서는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하여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DFID를 나왔다.

02_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도착하다



한 달간의 영국활동을 마치고 이제 아일랜드로 넘어왔다.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한 것 같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 역시 아마도 우리와 일본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지 않나 싶다. 어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아일랜드를 유럽의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주위의 열강들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온 점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 방문한 아일랜드는 생각보다 그 규모가 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일랜드를 아주 작은 섬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영국을 큰 나라라고 생각한 나머지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먼저 이틀 동안 더블린 시내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블린 시내는 가운데 일자로 뻗은 리피(Liffey) 강을 중심 삼아 강남과 강북으로 쉽게 구별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것과 흡사 비슷하다. 더블린 시내도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후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이 어느 정도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영

국에 비해 아일랜드는 조금 조용하고 규모가 작다는 점을 빼고는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템플 바(Temple Bar)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과 맥주(특히 기네스) 그리고 문화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어쩐지 아일랜드는 자유와 낭만이 녹아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틀 만에 아일랜드를 다 느끼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내가 느낀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세상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음악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최고의 NGO 단체 Concern Worldwide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NGO중에 하나인 Concern Worldwide를 방문하는 날이다. 얼마 전까지 같은 팀이었던 박규희 직원이 지난 겨울에 인턴으로 다녀와 몇몇 정보를 들어서 그런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체다. 숙박하고 있는 탈봇 거리(Talbot Street)에서 약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St. Stephen Green에 내려서 약 5분 정도 걸어가니, 3층 정도 되어 보이는 건물에 Concern Worldwide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보인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국의 Oxfam 본부가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서 Concern도 그런 외관을 가졌을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더블린 시내 중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큰 NGO 단체 건물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나 보다. 처음 본 Concern 본부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실망했다. 나중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고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Concern은 도로 주변의 건물 외에도 그 안쪽으로 미로처럼 들어가서 보면 또 다

른 건물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전체 규모를 다 합하면 Oxfam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 물론 Oxfam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되는데 비해 Concern 본부에는 약 170명이 근무한다고 하니 그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어쨌든 안내 데스크에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고 조금 기다렸더니, 어떤 여자 분이 반갑게 인사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미리 연락했던 Lizzy Noone 씨였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Lizzy와 함께 미로와 같은 길을 따라 Concern 본부의 뒤쪽 건물로 이동했다. Lizzy의 설명에 따르면 1996년에 Concern이 현재의 캠든 거리(Camden Street)로 이사를 했고, 처음에는 앞 건물만을 사용하다가 그 규모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져 뒤쪽 건물까지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Lizzy가 속한 Active Citizenship Unit은 뒤쪽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은 Concern Worldwide는, 1968년 비아프라에 구호물품을 실은 배 한 척을 보내주는 것을 시작으로 창립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3,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개발과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NGO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04 Concern International 면담자료

Ⅰ. Concern Worldwide 일반사항

1. 2008 예산집행 규모? € 119.5 Million

2. 예산규모

A. 수입 : € 132.3 Million (2008년 기준)

a) Grants from Government, Co-funders : € 66.3m Million (50%)

b) Fundrasing Activities : € 53.6m Million (41%)

c) Donated commodities : € 11.2m Million (8%)

d) Others : € 1.2m Million (1%)

B. 지출 : € 136.8m (2008년 기준)

a) Relief and Development : € 119.5m Million (87%)

b) Fundrasing : € 12.5 Million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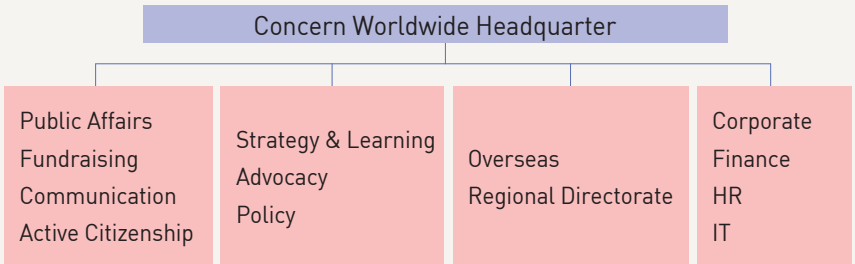
c) Development Education : € 4 Million (3%)

d) Governance : € 0.8m Million (1%)

3. 직원규모

a) 170 Staff in Headquarter b) 3,000 Full-time Staff around the World

4. 조직도



Active Citizenship Unit에는 총 5명이 있는데,

Campaign Officer – Lizzy Noone : 주로 Stop Child Labor 등 캠페인 담당

Schools Officer – Evanna, Lucssy : 주로 School Debate 사업을 담당

Volunteer Officer – Joh : 주로 Volunteer 모집, 운영 담당

II.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관계

1. Irish Aid

a) MAPS 2008 : € 26 Million

b) Development Education Fund Scheme(DEFS) : MAPS 지원 이후에는 별도로 DEFS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

2. 국정 교과편찬위원회(National Curriculum Agency)

a) Regular Meeting with National Curriculum Agency

3. Development Education.ie

80: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단체들과의 협조 하에 Irish Aid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성한다. 영국의 DEA에서운영하는 Globaldimension.org.uk와 겹치는 것도 약간 있지만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들도 있고, 특히 학교에 적용하는 것들은 독창적인 것이 많다. 아래 6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80:20 Educating & Acting for a Better World, Aidlink, Concern Worldwide, Irish Aid,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Self-Help Africa

4. Campaign for Education.ie

개도국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모임으로, 개발교육과는 다소 또 다른 내용의 연합체로 아래 14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ActionAid Ireland, Association of Secondary Teachers Ireland, ASTI, Concern,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ICTU), Irish National Teachers' Organization(INTO), Irish Task Force against Child Labour,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NYCI), Oxfam Ireland, Poetry, Sport Against Racism Ireland(SARI), Sightsavers International, Suas Educational Development, Teachers' Union of Ireland(TUI), VSO Ireland

Ⅲ. 개발교육

1.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과 Active Citizenship Programme

작년에 부서 명칭을 Development Education Unit에서 Active Citizenship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Development Education Unit이 다소 Teaching의 개념에서 일방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Active Citizenship은 보다 쌍방향적이고 참여적이며 자발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차별성이 있다.

2. 개발교육 교재 개발

Concern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사람은 없고, 주로 각 방면의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Concern과 협조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3. 시행중인 캠페인 프로그램

ⅰ) Concern's Debates

아일랜드 전체에 Secondary School이 750개 정도 되는데, 학교 리스트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Debate 관련 일정 등을 공지한다. 약 150개 학교에서 참여하는 정도로 Concern의 Active Citizenship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총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9월경 공지와 접수를 시작하여 한 학교 당 4명으로 구성된 Debate팀이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치러 최종 결승전은 그 다음해 5월경에 실시된다. 최종 결승에는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 약 700여명이 응원과 구경을 오는 등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심사는 Concern Staff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Volunteer 그룹이 실시하고 약 300명의 심판이 구성된다.

ⅱ) Writing Competition

ⅲ) School Speaker

Concern은 이 제도는 잘 활용하지는 않고 1명의 School Speaker가 있어, 학교 요청이 있을 시 학교에 가서 Concern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ⅳ) Concern Fast

ⅴ) Campaign Academy

ⅵ) Know Your World Quiz

4. 프로그램 평가

행사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참여 학생들과 교사, 부모들로부터 Feedback을 받고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더블린 시내 한복판의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

오늘은 Irish Aid의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 방문의 날이다. 개발교육 부분에서 아일랜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센터가 더블린 시내에서 개발인지와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은, Irish Aid가 리머릭(Limerick)이라고 하는 지방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홍보 및 교육센터가 수도인 더블린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가 생긴 것이 작년 1월이라고 하니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센터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다. 아무튼 시내 한 복판, 우리로 치면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이런 센터가 있어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제고를 도모하고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부러운 점이 참 많았다.



센터에 들어가니 Frank Flood라고 하는 매니저가 환영을 한다. Frank에 따르면, 작년 1월 이곳에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한 이래로 약 6,000명 이상이 이

곳을 다녀갔다고 한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워크샵, 전시,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이슈와 자원봉사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

수연의 추가설명

오코넬 거리에 위치한 Irish Aid Volunteering Centre는, 한국으로 따지면 지구촌 체험관과 같이 Irish Aid가 대국민 인지제고를 위해서 설립한 곳이다.



Frank의 환영 인사와 간단한 소개를 마친 후에 Carmel Maden Executive Officer와 Conor McHugh 교육 담당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Limerick에 있는 개발교육팀에는 총 10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중 2명 정도가 이곳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er에서 파견 근무를 한다고 한다. Conor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자기들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었고 Irish Aid에서 말하는 개발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For Irish Aid, development education is an educational process aimed at increas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dependent and unequal world in which we live. It seeks to engage people in analysis, reflection and action for local and global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It is about supporting people in understanding, and in acting to transform the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which affect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others at personal, communit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번역하자면 "개발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약간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교육과정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일깨우고 행동과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개발교육은 개인의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행동의 추구를 지지한다."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06년 발간된 Irish Aid 백서에서 "정부는 아일랜드의 모든 국민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그들이 더욱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고 밝힘으로써 개발교육에 대한 지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Irish Aid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커리큘럼 담당국(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을 포함하는 개발협력교육 자문위원회(Development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DEAC)를 구성하여 개발교육에 대한 자문과 평가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4백 74만 유로를 2009년에만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30여 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Carmel과 Conor와의 면담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주로 선교사에 의해 개발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개발교육은 1996년 National Committee Development Education(NCDE)가 생겨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 당시 약 10명으로 구성된 NCDE에서 주최하는 워크샵, 리서치 등이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얼마 뒤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Irish Aid에서 DEFS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본격적인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영국은 1998년, 아일랜드는 2002년에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났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2009년)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은 또 아니지 않나 하는 너스레가 생겼다.

영국보다 그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일랜드의 경우 '개발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또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제도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선교사의 종교교육에도 지원을 한다는 점이었다. 알고 보니 아일랜드는 국민의 90%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 이로 인해 개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일랜드 개발교육협의회 IDEA



영국의 경우, DEA라고 하는 단체가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 많은 NGO단체들과 지역 개발교육센터들이 DEA에 가입이 되어있어 이 기관이 개발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사실 한국에서 자료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IDEA)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제 Concern 방문했을 때 Lizzy씨를 통해 아일랜드에도 IDEA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숙소에 오자마자 IDEA에 메일을 보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방문 중인데 한번 방문해서 활동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Eimear라고 하는 홍보담당 직원으로부터 바로 답변이 온다. 지금 Matthias 팀장은 휴가 중이지만 찾아온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겠다고 한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있어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에 좋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 답변이 바로 오지 않거나 일정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연락도 잘 되었다. 거의 대부분 단체가 한국에서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자기네 단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찾아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환영이다. 물론 처음에 영국의 17개 개발교육센터에 방문과 관련하여 메일을 보냈을 때 몇 개 단체는 지금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아마 그 단체들은 메일이 잘못 갔거나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서 위안을 삼고 있다.

St. Stephen Green 근처의 사무실을 찾아가니 연락됐던 홍보담당 직원 Eimear가 반갑

게 맞아준다. 본인이 여기서 일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겸손해한다. 그리고 자기네 이름이 IDEA여서 사람들이 Idea(생각)하고 자꾸 혼동한다길래, 우리도 KOICA인데 사람들이 자꾸 사진회사 KONICA와 혼동을 한다고 하니 한참이나 웃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주제는 아일랜드와 한국의 개발교육 이야기.



우선 IDEA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2002년 아일랜드 NGO의 연합체인 DOCHAS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일랜드에도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뒤로 본격적으로 IDEA 설립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2002년 실시된 Irish Aid의 DEF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 물어보았더니, 물론 그것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이 아래서부터 위로(Bottom-up)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강조를 한다. 그리고 DOCHAS에서도 개발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IDEA와 일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고 물으니, DOCHAS는 주로 해외 개발사업에 주요 초점이 있고 포함된 단체도 NGO에 한정이 되지만, IDEA는 NGO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교육기관과 학교, 연구소 등의 개발교육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영국의 DEA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2009년 현재 IDEA는 약 4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Amnesty International, Concern Worldwide, Trocaire와 같은 NGO 단체, 그리고 Galway One World Centre, Waterford One World Centre와 같은 지역 개발교육센터들, 마지막으로 University College Dublin(UCDE)의 Equality Stud-

ies Centre, Belfast의 Center for Global Education과 같은 학교 연구소 등이다.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가 DOCHAS와는 다른 IDEA만의 특징인 셈인 것이다. IDEA는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기보다 최근 2~3년 사이 멤버십 구축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네트워크 형성과 동시에 다양한 개발교육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협의회가 할 수 있는 멤버단체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뉴스레터 발송 등을 더욱 왕성하게 실시하려고 계획이라고 한다.

갑작스럽게 잡힌 IDEA와의 대화였지만, 그래도 격 없이 서로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준비해 간 조선시대 신윤복 선생님의 전통 차받침을 선물로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선물에 크게 감동을 받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꼭 큰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 더 좋았던 거 같기도 하다. 아무튼 오늘 IDEA 방문을 끝으로, 나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약 40일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 현장방문의 공식 일정이 끝이 났다.

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날



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어쩐지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게,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아쉬운가 보다. 묵었던 호텔에 짐을 맡겨두고 조금이라도 더블린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자 길을 나섰다. 일주일 남짓 이곳에 있다 보니 이제 더블린 시내의 길은 어느 정도 눈에 익다. 오코넬 거리(O'connell Street)를 걷다가 다리를 건너 아일랜드 은행을 지나니 관광안내소가 나오고, 옆을 지나니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이 나온다. 사실 이곳을 언제 다시 오게 될지, 어쩌면 내 평생에 기회가 안 되면 다시 못 올 곳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니 왠지 서운한 마음이 밀려온다. 리피 강변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아일랜드여 안녕~ 비록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온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로의 원조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주기를……. 아일랜드에서의 짧은 일정을 뒤로하고 다시 런던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개발학과로 유명한 영국 서섹스 대학을 끝으로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 준비한 일정들을 잘 소화했는지, 빠진 곳은 없는지, 더 가고 싶은 곳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준비한 일정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된 거 같아 참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하며 한편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일정에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바로 서섹스 대학이라는 곳인데, 1966년에 개발학 단과대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IDS)가 일찌감치 시작이 되어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와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국에는 대학 자체가 그리 지명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서는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 하면 서운해 할 그런 대학.

서섹스 대학을 가기 위해 브라이튼(Brighton)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빅토리아 역

에서 출발해서 약 50분 정도를 달리니 브라이튼 역에 도착을 한다. 생각보다 그리 멀지는 않은 거리였다. 그런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또 브라이튼에서 시포드(Seaford)로 가는 기차로 갈아탄 뒤 팔머(Falmer)라는 역에서 내려야 한다. 브라이튼에서 팔머까지 약 10분 정도 걸리니 갈아타는 시간까지 넉넉잡고 총 한 시간 남짓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팔머 역에서 내리니 주위에 특별한 건 없고, 조용한 도시에 있는 것이라곤 브라이튼 대학과 서섹스 대학 2곳 밖에 없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이전부터 한 번 와보고 싶은 대학이어서 대학 푯말을 보고 찾아가는 기분이 설렌다. 마치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로 서울대학교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암튼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서섹스 대학을 찾았다. 대학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나는 개발학 단과대학만 알고 있어서 조그마한 대학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문대, 경영대, 화학, 의대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대학이었다. 그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개발학 단과대 IDS를 찾아가니,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연구실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또 방학을 이용해 학교 시설 보수공사가 한창 중에 있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건물만 보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물어보았다. Angela라고 하는 학사운영 담당자를 통해 몇몇 정보를 얻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개발학 사전 리딩 리스트를 얻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

이외 서섹스 대학 개발학과 리딩 리스트에는,

Sumner, (A. and Tribe), M. 2008.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Chari, (S. and Corbridge), S. 2007. The Development Reader
Collier, (The Bottom Billion), P. 2007.
Chambers, (Revolutions in Development Inquiry), R. 2008. London, Earthscan
Li Tania, (The Will to Improve), 2006. Governmentality, Development, and the Practice of Politics. Duke
Sen, (Development as Freedom), A. 199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서섹스 대학 IDS안에는 British Library for Development Studies(BLDS)라는 도서관이 있어서 개발학과 관련된 영국의 거의 모든 책들이 이 도서관 안에 있다고 한다. 마치 보물섬을 찾아 떠난 여행 중에 목표장소에 도착한 그 느낌처럼, 개발교육 또는 개발학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책들과 자료들은 이곳 IDS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안오고 돌아갔다면 무척이나 후회할 뻔 했다.

사실 한국에서 개발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적당한 교재와 참고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또 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 좋은 교재나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영국 이번 영국 연수를 통해서 바뀐 것이 하나 있다. 이제 자료의 빈곤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자료들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어 한국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적용해 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캐리어 가방 안에 쌓여있는 저 자료들을 보며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고 적용할까 하는 책임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 자료들을 한국에서도 잘 활용하여 각 학교와 단체들에 교육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한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다시 한국으로의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여운이 강하게 남는 한 달 남

짓의 영국과 아일랜드 연수기회가 우선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무척 좋은 기회였다. 이제 이 경험과 자료들이 KOICA 내 개발교육 체계와 NGO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들로 잘 이어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 또 내가 속한 KOICA에서 할 일과 NGO에서 할 일, 교육부 등 정부 및 각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일….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 우리나라 개발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모쪼록 전 세계의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나의 이번 연수경험을 비롯한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이 소중하게 쓰이길 기대해 본다.

2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 및 실행, 그리고 교훈

Year 2013



01_영국



〈런던의 대표적 상징물인 영국 국회의사당의 빅벤과 런던 아이〉

사뮤엘 존슨은 "런던에 싫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삶에 싫증이 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런던은 정말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도시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뉴욕에서 석사과정을 했지만, 런던은 뉴욕이 가진 매력에 더해 역사와 전통, 긍지와 신사도가 더해진, 정말이지 싫증을 느끼기 힘든 도시였다. 런던에서 보낸 짧은 3박 4일 내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느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회의 녹취자료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비단 런던 자체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거 같다.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바를 실현시키고 사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 그것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다.

한 때 너무나 드넓은 식민지를 보유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제국(Great Britain). 식민지 보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국제개발로 이어졌고, 그래서 국제개발학이라는 학문을 파생시킨 나라이자, 국제개발의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이끄는 국제개발

분야의 리딩(Leading) 국가라는 긍지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3박 4일간의 짧은 영국 방문은 개발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국인들의 높은 긍지와 깊은 애정을 고스란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제개발사회의 최신 트렌드를 접하다

영국에서 기관 방문이 가능했던 날짜는 3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기관, NGOs 그리고 민간 컨설팅 기관, 학계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기관을 방문하고자 했다. 그중 Triple Line Consulting Ltd.(TLCL)은 2007년 처음 접한 개념인, 개발인지자금(DAF)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다. 이 날 나는 DAF 프로젝트 매니저인 Clarrisa Poulson와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있었지만, 정작 당일에는 TLCL의 총책임자인 Lydia Richardson까지 회의에 함께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2007년에 어렴풋한 개념으로만 알던 DAF를 실제 실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를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고 또 설레는 경험이었다.

금번 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낀 점은, 원조기관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



〈Princeton Court에 위치한 TLCL 입구〉

근 국제사회의 최신 트랜드들이 한 손에 잡힌다는 느낌을 받은 점이다. 또한 국제개발계에서 소위 핫(Hot)하다고 하는 주제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개발 원조기관 활동 전반에서 드러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및 평가 강화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듣게 된 말이다. TLCL 역시 민간부문 개발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이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잠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부문 활용의 강화는 공적원조자금이 지니는 여러 문제 때문에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먼저, 무상으로 주어지는 공적원조자금은 수혜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의지를 잃어버리게 해 영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자체적인 시장 시스템을 붕괴시켜 도움이 되기보다 지역사회에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 국제개발의 대안책으로 등장했다. 또한 세계경제 악화로 정부부분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민간부문은 개발의 주요 주체로 국제개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포용적이라는 말 또한 최근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이다. 이전 시기의 경제개발 중심의 개발 방식은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양산해내었다. 따라서 포용적이라는 관심을 받고 있다. 진정한 개발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는 계층, 인종이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포용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Post-2015 개발 의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HLP)의 최종 보고서에도, Inclusive Growth, Social Inclusion이라는 말이 5대 원칙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다.

또한 TLCL은 평가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빈곤감축과 직결되는 평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

의 강화 역시 그간 천문학적으로 쓰인 원조자금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저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공공행정 자체가 성과 관리 체제로 변모하는 데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TLCL은 특별히 정부와 관련한 M&E 활동을 하고 있다길래, 정부사업의 성과 관리와 관련된 M&E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포용적인 정부(Inclusive Government)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측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수용되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평가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아일랜드 원조기관 방문은 이들이 개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실제 수행 중인 사업의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인해 문화충격을 느낀 시간이었으며, 또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M&E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면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권변화에 따른 영국 개발교육 정책의 새로운 흐름



Lydia가 회사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먼저 자리를 뜬 후, 본격적으로 DAF와 영국의 개발교육에 대한 Clarissa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2013년의 영국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했는데, 이는 개발교육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은 2010년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개발교육도 정책과 실행 전반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영국은 2010년 노동당 집권 시기가 끝나고, 보수적 성향의 연립내각(Coalition Government)이 들어섰다.[5] 전통적으로 유럽은 보수당보다 사회민주주의 아래에서 개발 및 개

5 영국은 노동당(Labor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305석을 차지해 제 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인 325석 확보에 실패함으로 보수적 성향의 Liberal Democratic Party와 함께 연립내각을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영국에서 절대다수 없는 의회는 1974년 이후 36년 만이다.

발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개발교육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이전 시기 보수당은 개발 및 개발교육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보수당 연립내각체제 하에서는 총리,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 전반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DA/GNI 0.7% 달성을 천명하여 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지난 40년간 영국 내에 활성화된 개발교육의 영향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가 개발 및 개발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개발교육이 활성화된 시기에, 개발교육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DFID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Cathy는, 현재의 영국의 개발 및 개발교육은 영국 모든 정당의 지지(Cross Party Support)를 받는 특별한 시기라는 표현을 썼다.

또 다른 이유는, 영국 총리인 David Cameron이 가진 개발에 대해 강한 의지 때문이다. 여전히 보수당 내에는 개발 혹은 개발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Cameron 총리가 ODA/GNI 0.7%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실제 현 DFID의 수장 역시 영국이 0.7%를 달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천명한 상태이다. 또한 Cameron 총리는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지지 세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현재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권 하에서도 개발 및 개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Cameron 총리는 UN Post-2015 개발 의제의 기본포맷을 형성하는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 HLP)의 공동의장 중 한 명으로,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다소 지지부진함을 보여주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Rio+20 작업반과는 다르게, Post-2015 개발 의제의 HLP은 일정을 따라 소기에 목적한 결과물인 고위급패널 보고서를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무엇보다 영국은 국제개발의 선두주자라는 명성을 빼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영국은 현재의 보수당 정권 하

에서도 여전히 개발 및 개발교육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당은 개발사업에 관한 돈이 국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지만, 개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발교육의 정책과 체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장주의적 접근의 강화, 평가의 강화, 공교육 내 교사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이다.

① 시장주의적 접근의 강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믿음은 보수당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영국의 보수적 연립정부 역시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교육에서도 시장주의적 접근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AF가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펀딩 시스템인 Global Learning Programme(GLP)이다. DAF 체제 아래에서는 DFID가 민간 개발교육기관으로 개발교육을 직접 펀딩하였던데 반해서, GLP 체제 아래에서는 펀드가 먼저 개별 학교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개발교육기관으로부터 개발교육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 서비스가 좋은 기관일수록 더 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낙후되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쟁이 일어나 교육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는 자금조달적인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 영국 학교들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교사훈련비(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가 제공되며, 이 돈을 통해 교사들이 Literacy Training, Assessment Training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바로 이 자금을 통해 교사들이 개발교육훈련(Development Education Training)을 받게 하는 것이다. GLP가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교사들이 GLP로부터 받은 돈으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한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후에는 이 CPD에 쓰이는 학교 자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를 구매토록 한다. 결론적으로 개발교육이 개발기관의 정부자금 없이 시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펀드에

있어서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교육기관 간의 경쟁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개발교육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DFID는 5년간 GLP로 펀드를 제공한 이후로는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을 끊고, 이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 차원에서 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당인 현 정권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시행함으로 원조금액을 낮추어 원조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교육 평가의 강화

성과, 효율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당 정권에게 정부사업 평가와 효과성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지닌다. 보수당 정권 집권 후 DAF가 종료된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역시 DAF 체제 아래에서의 개발교육의 성과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단 점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집권과 함께 정부는 일단 새로운 DAF 공여는 전면 종료[6]하고, 기존에 DAF로 진행된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7]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GLP 체제 내에서는 시작단계부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발교육 부문의 평가와 성과 관리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평가 방법 자체도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존 DAF 하에서는 교육과정 제공이라는 투입(Input) 위주의 접근을 가졌다면, GLP 체제에서는 개발교육이 개도국 빈곤퇴치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평가(Impact Evalution)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DAF에서 평가가 미약했다는 비판에 의거해서 DAF가 종료되고 있는 지난 3~4년 간, TLCL이 DAF 펀딩을 받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M&E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PDM을 활용해서 개발교육의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개발계에서 선풍적

6 2010년에 공여하기로 약속된 3개년 펀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DAF의 종료는 2013년에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펀드 제공 기회는 2010년부로 종료되었다.

7 DAF에 대한 평가는 크게 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는 노동당 정권 말엽인 1009년 PWC라는 컨설팅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는 2011년 새로 들어선 보수 연립정권 하의 Central Office Information(COI)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개발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을 권고하였다.

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향평가가 개발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신선했다. TLCL은 교육 전과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6개월 후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③ 공교육 내 교사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

영국 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발교육의 최신 트렌드는, 기존에 개발 NGOs 등 민간기관을 통해 직접 전달되던 개발교육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사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새로 들어선 보수당은, DFID는 정부기관이므로 순전한 공교육 안에서의 개발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민간을 통한 지원은 NGOs 스스로가 담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교육 접근법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내 교사교육을 통한 개발교육의 전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TOT(Training for Trainers) 방식이다. 즉, 이전에는 개발 NGOs 혹은 개발교육센터의 개발교육가(Development Educator)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개발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GLP 체제에서는 기존의 개발교육가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개발교육의 교수법을 가르친 뒤, 수업을 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TOT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을 통한 교육에서 공교육 내 교사교육으로 선회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앞서도 언급한 예산의 문제이다. 기존의 DAF 체제에서는 DFID가 지속적으로 민간의 교육기관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공교육을 통해서 개발교육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원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5년간의 DFID의 GLP 공여가 끝나면, 교육부가 학교로 지원하는 자금이 예산의 출처가 된다. 어느 공여국이나 원조 예산보다 교육 예산이 크므로, 예산 지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발교육센터 혹은 개발교육기관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지 못하여 개발교육의 수혜에 지역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는 이러한 단점도 보완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을 통한 개발교육이 산발적이며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은 지속가능

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공교육 내 교사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가 지니는 장점은 무척 많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이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먼저 이러한 TOT 방식이 가능하려면, 교사집단을 훈련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개발교육가와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극소수의 개발교육 전문가와 기관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학교가 개발교육을 구매하고자 해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몇 십 년간의 개발교육의 역사로 인해서 굉장한 규모의 개발교육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조차도, DAF 펀딩이 끊기면서 문을 닫는 개발교육센터들 때문에 실제 GLP 방식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민간과 공교육 Two-track으로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적용점이 될 것이다.

Clarrisa는 TLCL이 그간 DAF의 Major Grants를 감당해오고 있었으나, GLP 체제로 변화되면서 개발교육 펀드와 관련한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커리큘럼과 관련해서는 개발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유용한 웹사이트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방문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 Clarrisa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영국 개발교육의 주요주체들

① EU, European Commission to Development Education : EU 국가 내 개발교육기관에 개발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지난 30년간 이들 기관에 자금을 제공해왔다.

② DFID : 개발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DAF, GLP, Connecting Classroom Scheme Fund 등 다양한 펀드를 영국 내 개발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③ 개발교육센터(Development Education Centre, DEC) : 지역 개발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생겨났으나, 1998년부터 시작된 DAF를 통해 급성장해왔다. GLP에서는 교사들에게 개발교육 교수법을 전달하는 TOT 실행 기능을 맡았다.

④ Think Global : 영국 개발교육 기관들의 네트워크 협의체. 개발교육센터들의 연합체인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DEA)로 시작되어, Think Globa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DFID의 DAF 중 Mini Grants를 담당해왔다.

⑤ 개발교육 NGOs : 영국 내 다양한 국제개발 NGO들이 개발교육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Oxfam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영국 내 개발교육 관련 커리큘럼 및 교재를 제작 및 제공하며, 다양한 개발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⑥ 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IOE, London University : 런던 대학 교육대학원 내 개발교육연구센터장인 Dr. Douglas Bourn은 DEA 설립 등 영국개발교육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GLP 내에서 평가 부문을 담당한다.

⑦ Triple Line Consulting Ltd(TLCL) : 국제개발 컨설팅 회사로 DFID의 DAF 중 Major Fund를 담당해왔다.

⑧ British Council : 개발교육기관에 관련 펀드를 제공한다. Connecting Classroom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영국 개발교육의 가장 큰 변화, DAF 체제에서 GLP 체제로의 전환

런던 대학의 교육연구소 내의 개발교육연구센터(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DERC)는 개발교육의 학문적 접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DERC가 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DERC의 책임자이자 영국 개발교육의 구루인 Douglas 교수는 개발교육과 관련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대학들과 개발교육에 관한 원거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한국에도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그런 면은 한국에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DERC에서



〈런던 대학 교정.
부슬비에 젖은 빨간 전화 부스가 영국스럽다〉

는 12명의 박사들이 개발교육과 관련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교육에 특화된 연구 저널(Journal)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발교육의 개념조차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온 나에게는 문화충격에 가까웠다. 셋째로는 DERC는 의사, 엔지니어,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자신의 직업과 개발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시행하고 있다. 넷째는 개발사업에 관한 평가가 경제학, 정책학과 같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DERC는 개발교육에 관한 평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일례로 DERC는 DAF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개발교육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였으며, 새로 시작되는 GLP 사업에서는 개발교육 평가 부분을 책임지게 된다. DERC가 하고 있는 활동은 학계가 개발교육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한국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생겨야 한다고 믿었던 상황에서 롤 모델을 발견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었다.

DERC는 개발교육의 학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통찰과 아이디어에 대해 얻을 점이 많았다. 먼저 개발교육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배운 점이 좋았다. 일반적으로 개발교육이라고 하면, KOICA의 활동이나 빈곤, 국제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로 사회교과서의 한 부분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특강 등의 형식으로 비공식적인 교육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교육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영국의 경우는 수학과 지리, 언어 등 다양한 교과목에 개발교육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수학의 경우는 전 세계 빈곤층의 숫자라던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숫자 등을 통계와 같



〈런던 대학 교육연구소, Douglas 교수의 연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은 수학 문제에 넣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교과목이라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정규 교과목 안에서 지구촌 이슈를 습득할 수 있도록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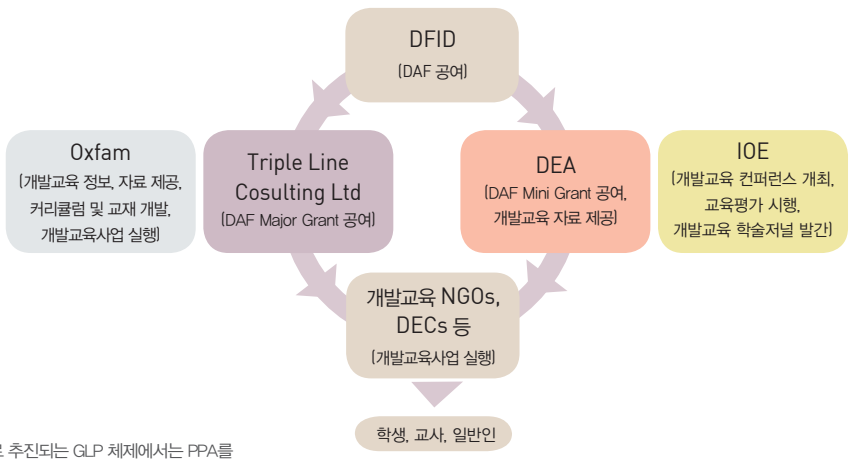
Douglas 교수로부터 DAF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Tony Blair 총리가 주도한 노동당이 1997년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개발교육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전에는 개발교육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자금을 구하거나 유럽 연합(EU)에서 펀딩을 받는 식으로 개발교육사업을 진행해왔으나, DFID의 DAF 사업이 1998년에 시작되면서 영국 개발교육은 본격적인 황금기를 맞게 된다. 연간 최고 £24 Million을 제공한 DAF 사업 아래 개발교육기관들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이 시기 영국 개발교육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 반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화한 DAF 제공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너무 다양한 개발교육 방식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합의나 포커스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후 성과를 중시하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DAF는 노동당 정권이 끝나는 시점인 2010년 막을 내리고[8], 보수당 정권은 새로운 개발교육 전파 시스템인 GLP를 시작하게 된다. DAF 체제 아래서는 개발 NGOs, 종교단체, 학교, 개발교육센터 등이 자신들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자금을 위해서 DFID로부터 Mini Grants 혹은 Major Grants를 직접 공여 받은 반면, GLP 체제 아래서는

8 2010에 3년간 Funding을 약속받은 기관들에 한한 지원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으나, 새로운 펀딩이 종료되었다.

IOE, Think-Global, Oxfam 등의 단체들이 함께 컨소시움(Consortium)을 이루어 공교육 영역을 통한 개발교육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DAF와 GLP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AF 체제 아래의 개발교육 거버넌스 시스템은 DFID가 DAF를 TLCL(Major Fund), Think Global(Mini Fund)에 공여하면, 이를 두 기관이 다양한 개발 NGOs 및 개발교육센터 등의 개발교육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DAF는 주로 크기가 작은 NGOs나 개발교육센터를 타겟으로 분배되며, Oxfam처럼 규모가 큰 NGOs는 DAF 자금을 따로 받지 않고, DFID로부터 제공받는 Partnership Fund인 Program Partnership Agreement(PPA) 중 일부(최대 10%까지)를 개발교육으로 사용해왔다.[9] DFID의 자금을 받은 개발교육기관들은 영국 내에서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 중 특히 영국 개발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Oxfam은 개발교육 시행 뿐 아니라, 영국 공교육 내에서 사용되는 개발교육 커리큘럼 제작과 개발교육기관이 사용하는 개발교육 교재 및 자료 발간 및 보급 역할을 담당해왔다. 런던 대학교의 Douglas 교수는 Think Global 설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고, 또한 그가 책임자로 있는 기관인 DERC는 개발교육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개발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기능 및 다양한 개발교육 평가를 수행해왔다.

〈Development Awareness Fund(DAF) 체제〉



9 새로 추진되는 GLP 체제에서는 PPA를 개발교육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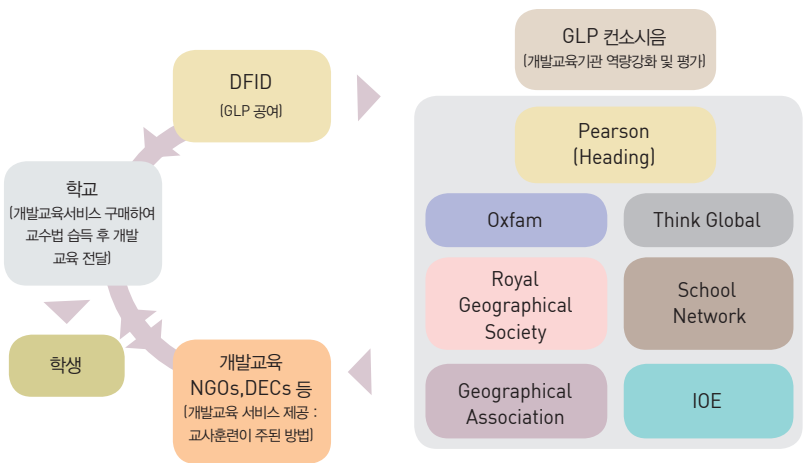
다음으로 2013년 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GLP 체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GLP 체제 하에서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TLCL과 Think Global의 DAF 분배 기능이 사라졌으며, Oxfam, IOE, Think Global 등의 기관이 컨소시움을 이루어 개발교육기관의 역량강화와 평가를 시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7개인데, Pearson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리딩 기관이 되고, 여기에 Oxfam, Think Global, Royal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ical Association, School Network, IOE이 참여한다. Pearson은 개발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기관은 아니지만, 유명한 컨설팅 회사로서 학교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잘해온 것이 부각되어 이 컨소시움의 리딩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DFID가 Peason과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고, 다시 Pearson이 위에 언급한 6개 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6개의 기관은 1) Whole School 2) Resources 3) Continuos Professional Development(CPD=Teacher Training) 4) Impact Evaluation 등 GLP의 4가지 우선순위 분야와 관련된 일을 각각 맡아 시행하게 된다. 개발교육의 학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IOE는 영향평가 부분을 담당하고, Think Global과 Royal Geographical Society가 교육 자료(Resources)[10] 부분을, 마지막으로 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Whole School 부분은 Oxfam과 Geographical Association이 맡는다. 위의 4개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개발교육 전파의 주된 기능을 할 학교 간 네트워크 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School Network이 담당한다.

이 외의 개별적인 개발교육기관들은 이 컨소시움에 개발교육과 관련된 제안서(Proposal)을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이 나면 개발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다. 각 학교들이 이 리스트를 보고 개발교육기관을 고르게 된다. 학교로부터 선정된 개발교육기관들이 교사들을 훈련시켜, 교사들이 공교육 내에서 개발교육을 감당하도록 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민간을 통한 교육은 민간기관 자체적인 펀드 및 EU, British Council 등의 펀드를 통해서 시행된다.

10 이미 10년 동안의 DAF 공여로 인해 충분한 분량의 교육 자료가 만들어졌을 것이란 공감대 위에서, GLP에서의 Resource 부분은 새로운 자료 제작이라기보다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GLP 체제는 DAF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방향성 및 성과 관리가 부재하였던 면을 극복하고자, 시작단계부터 분명하고 원대한 목표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지니고 시작한다. GLP는 5년 내에 Stage 2(7세~11세), Stage 3(11~14세)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국 내 학교들의 50%까지 개발교육을 전파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DAF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시행하는 GLP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DAF와는 다르게 GLP는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시행하기에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 여파로 이를 시행할 주체세력인 개발교육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 특히 개발교육센터는 작은 규모로 주로 DAF의 Mini Grants를 받아왔으나 DAF 자금이 중단되고, GLP가 새로 시작되는 2~3년간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벌써 10여 개의 개발교육센터가 문을 닫았다는 점이 GLP의 실효성에 시작단계부터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Global Learning Program(GLP) 체제〉



〈DAF와 GLF 체제 비교〉

펀드명	Development Awareness Fund		Global Learning Programme
내용	영국 내 개발교육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의 펀드		DAF의 변형형태로 개발교육을 위한 신정부의 주요펀드
기간	1999년~2010년(노동당 정권 하)		2013년부터 새로 시작(보수당 연립정권 하)
규모	해마다 규모에 편차가 있으나 최고 많이 지원한 경우 £24 Million까지 지원		5년간 € 20 Million 지원
지원 방식	Think Global 및 TLCL 용역을 통해 개발교육기관으로 자금 지원	⇨	자금을 학교에 지원하여 개발학교가 개발 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구매
장점	특별한 조건과 방향성 없이 지원되어 다양한 기관의 창조적인 개발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됨.		펀드 착수시기부터 평가를 고려하며, 영국 내 학교의 50%까지 개발교육을 전파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
단점	교육 효과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도 부재함. 이는 성과 측정을 중요시하는 보수당 정권 하에 치명적인 문제로 부각됨.		목표는 거창하나, 이의 실행을 위한 펀드가 대거 축소됨으로 개발교육의 주체인 개발 교육센터가 대거 문을 닫는 현상을 야기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존재함.

영국 개발교육 확산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세계 최대의 원조담당정부기관인 영국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최근에(2013년 2월) 본부를 트라팔가(Trafalgar) 광장 앞으로 옮겼다. 내가 방문하기 겨우 2주 전에 이사를 했다고 하니, 아마도 내가 DFID 신청사를 방문한 첫 한국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괜스레 으쓱해진 기분이 들었다. DFID의 신청사는 트라팔가 광장 앞 내셔널 갤러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화이트홀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DFID는 독립적인 부처인지라 경비도 삼엄하여 1층 로비에 몇 명의 보디가드들이 출입자

들을 세세히 체크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는 사진 찍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DFID의 신청사 내부를 담아오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로비부터 굉장히 멋진 느낌이 든다.



〈화이트홀 거리(Whitehall Street)에 위치한 DFID의 신청사, 독립부처이니만큼 규모가 상당하다〉

내부는 이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휑한 느낌이 들지만, 층층마다 쉴 수 있는 많은 의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직원들이 보유한 최신식의 컴퓨터들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개인 작업 공간은 굉장히 협소해서, 전 직원이 자기의 고유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정부원조기관인 NORAD와는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직원이 한 건물에 있자니 좁은 사무 공간의 문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DFID의 청사 이전 뿐 아니라 개발교육과 관련된 팀의 변화도 있었다. 이전에 개발교육은 Communication Division 내의 "Outreach & Stakeholder Team"에서 다루어졌는데, 최근에는 "Education & Partnership Tea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발교육과 관련된 펀드의 양은 줄었을지 모르나, DFID 내에서의 개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인지도는 오히려 상승한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후에 아일랜드 사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원조기관 내의 개발교육을 다루는 부서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홍보, 시민사회, 개발교육을 다루는 팀 간의 긴밀한 협업체제이다.

영국의 경우 개발교육을 다루는 "Education & Partnership Team"은 홍보실인 Com-



〈DFID 신청사 로비.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munication Division에 속해 있다. Communication Division은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Journalist, Website Team, Internal Communication Team, Digital Team 그리고 Education & Partnership Te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개발교육팀은 시민사회팀과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개발교육을 정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ODA교육원을 보유한 KOICA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시민사회팀과 홍보팀, 개발교육팀 간의 협업이 효과적인 개발교육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만은 어느 국가에 국한될 것 없이 자명하다.

Cathy와의 회의는 정부 원조기관에서의 개발교육과 관련된 접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먼저 Cathy는 DFID가 개발교육이 영국에 뿌리내리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주었다. DFID의 개발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직후로, 이 중심에는 당시 DFID의 수장이었던 Clare Short 장관이 있었다. 그녀는 국제개발에 매우 헌신된 강한 열정을 지닌 사람으로, 영국의 ODA/GNI 비율을 국제사회의 권고기준인 0.7%로 늘리고자 노력하였다. 1997년 백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2001년 MDGs가 국제사회에 천명되기 이전부터, 영국은 2015년까지 세계의 절대빈곤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초보건 및 기초교육을 증진해야 한다는 MDGs의 목표들을 1997년 백서에서 영국 개발 원조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천명하

고 있었다. 이렇듯 원대한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1997년 백서에 영국 내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997년 백서는 "영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개발 이슈를 습득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끔 하라."고 명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Clare 장관 하에, DFID는 개발교육을 포함한 대중의 국제개발에 대한 지지와 인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중에서 특히 가장 강조된 부분이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이다. 5세에서 18세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된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의 4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997 노동당 정부 하의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의 4대 핵심 목표〉

1) 글로벌 이슈가 영국 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한다.
2) 학교에서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제공한다.
3) 교사교육이나 개발교육 시행을 감시하고 보상을 주는 제도 등을 통해 학교를 통한 교육을 강화한다.
4)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Whole School이나 지역의 활동들을 장려한다.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DFID의 전략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그간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개발교육이 구체적인 뚜렷한 목표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미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개발교육 상황은 1997년의 그때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개발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해본다면 현 시점이 바로 DFID가 1997년에 행했던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던 시점이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 개발 원조를 대폭 확대하던 시점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점을 둔 것이 개발교육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ODA를 대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현재 한국에 개발교육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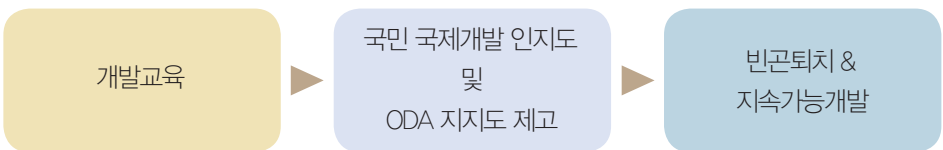
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무엇보다 원조가 급증하던 시기에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필요로 해 첫 백서를 발간하였던 시점 역시 당시의 영국과 한국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의 개발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영국 개발교육의 목표와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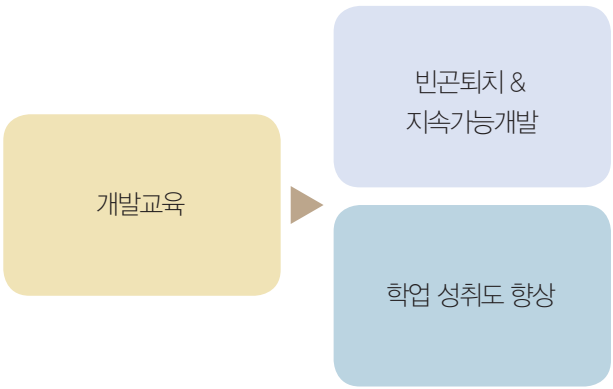
영국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은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돈은, 개도국의 사람들을 위해 빈곤감축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제개발에 대한 인지제고사업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제고사업의 목적 역시 개도국의 빈곤감축이다. 때문에 영국 개발교육 정책은 단순히 개발교육을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와 ODA 지지도 제고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미미하게 시도하고 있는 개발교육이나 홍보가 ODA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더 나아가 개발교육 자체가 원조에 효과적인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교육의 궁극적 목표 역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교육의 목표와 목적 : DAF 체제〉



GLP 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접근을 보인다. 기존의 개발교육의 목적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였다면, GLP 체제에서는 개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까지 관심을 가진다. 실제 GLP 체제가 만들어진 저변에는, 학생들이 지구 이슈를 배우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했다. 즉 Global Dimension을 교과과정에 넣을 때 학생들은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흥미를 느끼며, 열정이 붙어 전반적인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배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증명된 바이다. 해외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초 · 중 · 고등학교들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서, 현실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유도 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GLP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GLP 체제 아래에서는 개발교육이 기존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외에도, 이 교육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검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개발교육의 목적 : GLP 체제〉



다음으로 Cathy는 DFID가 하고 있는 개발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창조적인 프로그램들인지라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뻤다. 기관을 돌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감사한 일이었다.

개발교육과 관련해서 DFID가 자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사업으로 Cathy가 꼽은 것은 앞서 언급된 GLP와 "School Linking Project"이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British Council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며, DFID가 £17 Million을, British Council이 £25 Million을 3년간 공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British Council이 그간 진행해온 「Connecting Classroom」이라는 제도를 DFID와 공동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학교를 연결 짓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탄자나이, 베트남 등 다양한 개도국의 학교와 영국의 학교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수기메일 등을 통해 서로 1대 1 펜팔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도국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 가는 데 얼마나 걸렸고, 오늘 방과 후에는 얼마나 일을 했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선진국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친구의 입을 통해서 개발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선생님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직접 교환 방문을 하기도 한다. 즉 영국의 선생님들이 개도국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개도국의 선생님들이 영국의 학교들을 방문하여 영국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향후 3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DFID와 British Council은 전 세계 5,600개 학교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31,000개의 학교들과 인터넷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전 세계 15,000명의 교사들과 3,300명의 교장들이 각각 교사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 받을 것이다. 또한 6,600개 학교가 International School Award Status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 다양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영국 개발교육 프로그램

1) Global Student Forum

16~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런던에 모여서 개발교육과 관련한 컨퍼런스를 한 후, 여기서 배운 바를 자신의 학교에서 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 Shape the Future Competition

David Cameron 총리에 의해서 제안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경쟁대회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MDGs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11~14세 아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36 Million이 공여될 예정이며, 2012년 6월에 시작되어 Post-2015 개발 의제가 공포되는 2015년 9월 전인 2015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ameron 총리가 Post-2015 개발 의제의 기본 포맷을 만드는 고위급패널의 의장이라는 면이 작용하여 생긴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인지제고라는 목적 외에도, Top-down 방식이었던 MDGs와는 다르게 Botton-up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Post-2015 개발 의제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의견 청취 기능도 겸하고 있다.

3) Send My Friend to School

전 세계 리더들이 MDGs에서 약속한 교육 관련 공약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는 5,000여 개의 학교와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개도국의 친구들을 학교에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종이 메달을 작성하고 이를 영국 및 세계의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웹사이트 : http://www.sendmyfriend.org

4) Youth Volunteer

18세~22세 청소년들이 3달 동안 개발도상국에 가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돌아와 이 경험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나누는 프로그램. 단순히 개도국을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난한 개도국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1년 반 동안 이를 시행해왔으며, 3,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5) Oxfam Water Week

매년 한 주를 "식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간인 "Water Week"으로 선정하여, 영국 내 학교들이 대거 캠페인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① 관련 비디오 시청 ② 식수 취약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토론 ③ 'Water Can Change Lives' 활동 ④ 동전을 모아서 모금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2012년 영국 내 2,000개 학교가 이에 참여했다.

관련 웹사이트 : http://www.oxfam.org.uk/education/school-projects/water-week

6) Oxfam Message in a Book

학생들이 세계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법이나 빈곤퇴치 등의 이슈에 대해서 배운 후, 배운 것을 토대로 편지를 써서 집에서 쓰지 않는 책에 끼운 후에 Oxfam 가게[11]에 기부한다. Oxfam 가게는 편지가 꽂혀진 책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책을 사는 고객들이 다시 빈곤 이슈에 대해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빈곤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며, 글쓰기 기술 등의 기본적인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oxfam.org.uk/education/school-projects/message-in-a-book

7) Oxfam School Speakers

현직 및 퇴직 교사,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들을 일정한 모집 절차를 걸쳐 선발한 후 교육시킨 후 학교로 보내서 개발이슈를 가르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백 명의 School Speaker가 활동하고 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Oxfam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 워크샵부터 3회 워크샵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토대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고안되어 있다. 기후변화, 긴급구호, MDGs, Oxfam 소개, Water week,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식량, 모두를 위한 보건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 자료가 있다.

관련 웹사이트 :

http://www.oxfam.org.uk/education/school-projects/oxfam-school-speakers

11 한국의 '아름다운 가게'처럼 시민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면, 이를 팔아 기관의 펀트레이징 방편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가게. 실제 '아름다운 가게'가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8) One World Media Awards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One World Media Awards는 젊은 언론인과 방송인의 개발도상국 개발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웹사이트 : http://oneworldmedia.org.uk/

9) UK Aid Match(Match Funding Scheme)

UK Aid Match는 원조에 대한 이는 원조에 대한 대중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NGO들이 특정 개발사업에 대중으로부터 모은 기부금 액만큼을 DFID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의 가난한 여아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Oxfam이 £9 Million의 기부금을 대중으로부터 받으면, DFID가 다시 이 사업에 £9 Million을 공여하여 총 £18 Million의 금액이 이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 방법을 통해 NGO들에게는 사업을 대중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독려하고, DFID는 대중이 원하는 곳에 원조자금을 집행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36 Million을 공여하고 있다.



〈DFID가 위치하고 있는 Whitehall Street의 트라팔가 광장. 맞은 편으로 National Gallery가 보인다〉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 개발교육의 위기이자 기회



Oxfam에서 만난 Richard는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와, 이것이 개발교육에 미친 여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국은 2010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부 수

장도 보수적 인사로 바뀌었다. 2010년 5월 취임한 교육부 장관인 Michael Gove는 극보수적 성향의 인물로, 국제개발에 관심이 없으며 교육 방법론 자체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Tony Blair 총리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 개발교육이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DFID의 DAF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지에 더해, 당시 교육부의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한 영향을 차지했다. 실제 교육부는 Global Dimension을 공교육의 필수요소로 지정해 개발교육이 학교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제도를 구축해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개발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정부부처와 교육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인데, 보수당 연립내각이 들어선 후에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했다.

단순히 협력이 끊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변화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보수당 정권 교육부의 교육 정책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 이념보다는, 국제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영국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교육 선진국이 교육 후진국 방식으로 퇴보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정규교과목의 변화가 있었는데, 영어와 과학, 수학과 인문학, 그리고 언어 이렇게 5개를 제외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대거 정규교과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1) Global Dimension 2) Citizenship 3) Community Cohesion[12]이었다. 이전 시기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정규교과과정에 필수로 다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개발교육이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ship)"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교육부장관은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위의

12 Community Cohesion은 다시 Local, National, Global 차원으로 나뉘어, Global Community Cohesion의 경우 글로벌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하였다.

3개 요소들을 모두 삭제해, 이들은 Secondary Curriculum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듯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개발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진 영국의 개발교육계에서 더욱 강화된 방법이 바로 수학, 과학, 영어 등의 일반교과목에 개발교육적인 내용을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Oxfam의 경우, 개도국 아이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인 "Send My Friends to School"을 벌였다. 또한 교육 받은 빈곤에 대한 이슈를 편지로 써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Message in a Book"의 경우, 이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Persuading Writing)란 기술(Skill)을 강화하는 영어, 언어(Literacy)과목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서 IOE의 DERC에서 하는 비전통적인 개발교육 과목에, 개발교육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어려워진 개발교육 환경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상황이 개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영국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자율성의 강조이다. 현 교육부는 보수당 정권인 만큼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규교과목을 대거 축소하여 개개 학교들이 자신들의 교과과정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은 현재 굉장히 협소한 필수 커리큘럼이 있고, 그 외에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교육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개개학교에 어필된다면, 학교들이 이를 교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이 들어설 자리를 잃은 것은 개발교육의 분명한 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통해 일반교과목에 개발이슈가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교과과정의 자율성이 최대화 된 시기에 개발교육을 판매만 잘한다면 이전 시기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재 영국의 교육 정책 변화가 개발교육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잠시 설명하였듯이, 교육 정책의 변화는 개발교육의 목적과 평가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개발교육 펀드는 개발 관련 정부기관인 DFID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발교육이 궁극적으로 세계 빈곤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영향 평가의 궁극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학교가 개발교육을 구매하게 되는 새로운 GLP 체제 하에서는 개발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된다. 또한 개발교육이 각 학교에서 채택되려면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동일하게 이러한 면이 개발교육의 목표이자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개발교육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 DAF 체제와 GLP 체제에서 활용했던 이 방법들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02_아일랜드





〈 좌측 : 더블린의 대표적인 상징인 오코넬 거리에 위치한 더블린의 창, 빛의 기념탑
우측 : 아일랜드의 자랑 「Dubliners」의 저자 James Joyce 상〉

아일랜드에서 보낸 시간은 2007년의 노르웨이 방문을 떠올리게 했다. 2007년 대학원 친구들과 노르웨이의 개발교육기관인 United Nations Association(UNA), 정부원조기관인 NORAD, 노르웨이 3대 NGO 중 하나인 Norwegian Church Association(NCA)을 방문할 당시, 우리의 신분은 겨우 대학원생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을 위시로 한 이들 원조기관의 엄청난 환대는 왜 이들이 이러한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순간이었다. 이들 모두는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써서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서 나누어 주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었다.

아일랜드의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를 방문했을 때도 홍보부서와 개발교육부서에서 온

총 4명의 직원들이 회의에 함께 해주었고, 혼자서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분량의 많은 스프와 샌드위치, 커피, 차를 대접해주었다.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태도, 가진 것을 나누어서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모습, 이러한 점들이 이들 원조의 성격을 구성하는, 타국들과는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었다.



〈Irish Aid의 직원들은 다양한 샌드위치, 수프, 차와 커피를 마련해놓고 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작은 국가들은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개척이나 자국 영향력 발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 하는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NGO들을 통한 공여비율이 높고, 최빈국이나 다자기구, 사회개발 및 긴급구호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인도주의적 성격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로는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가 현실주의 국제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작은 국가로서의 태생적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을 방문하고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국익 추구의 면이 하나의 작은 이유는 될지는 몰라도 이들 원조의 성격을 규명 짓는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가지는 온정과 인권과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애정의 수준이 이해타산적인 원조를 하는 여타의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끼기 때문이다.

홍보부서와 개발교육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본격적으로 아일랜드 개발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Irish Aid 방문에서 받은 첫 번째 Insight였던 홍보부서(Publ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ion, PIC)와 개발교육부서(Development Education & Civil Society Section, DEC)[13]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Irish Aid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Carmel Madden과 약속을 잡았는데, 홍보부서의 사람들도 함께 회의에 참여한 것이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추후에 알고 보니 이는 개발교육부서뿐만 아니라 홍보부서도 개발교육을 다루고 있어서, 두 부서의 개발교육 실행을 위한 각각의 역할, 긴밀한 협력체제 그리고 시너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rish Aid 개발교육 실행 모델은, 두 부서의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 범위를 선정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나 대상과 사업이 중첩될 수 있는 면을 고려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였다.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Irish Aid라는 단체와,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끔 하고, 빈곤과 가난이 무엇이고 원조가 왜 필요한지를 교육시키는 점은 두 부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홍보부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주로 하고 Irish Aid와 해외 원조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는데 반해, 개발교육부서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역량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력을 길러내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구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두 부서가 똑같이 MDGs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홍보부서는 MDGs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일차적인

13 개발교육부서의 원래 이름은 개발교육과 시민사회부서이지만 이 책에서는 편의상 개발교육부서로 칭한다.

목적을 둔다. 반면, 개발교육부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MDGs의 취약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학습자가 능동적,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두 접근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일이 있다. 이는 2008년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가 설립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Irish Aid와 해외원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 센터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총리(Prime Minister)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한 NGO 실무자를 이곳에서 마주치게 된다. 그는 Irish Aid가 제공하는 개발교육 펀드를 받는 기관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 건물 건축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여 Irish Aid 직원들을 당황시켰다고 한다. 개발교육이 더 잘 제공될수록 국민들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이런 식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을 '건강하다(healthy)'라고 표현하는 홍보부서 책임자의 태도에서 아일랜드 국제개발협력계의 앞서 나간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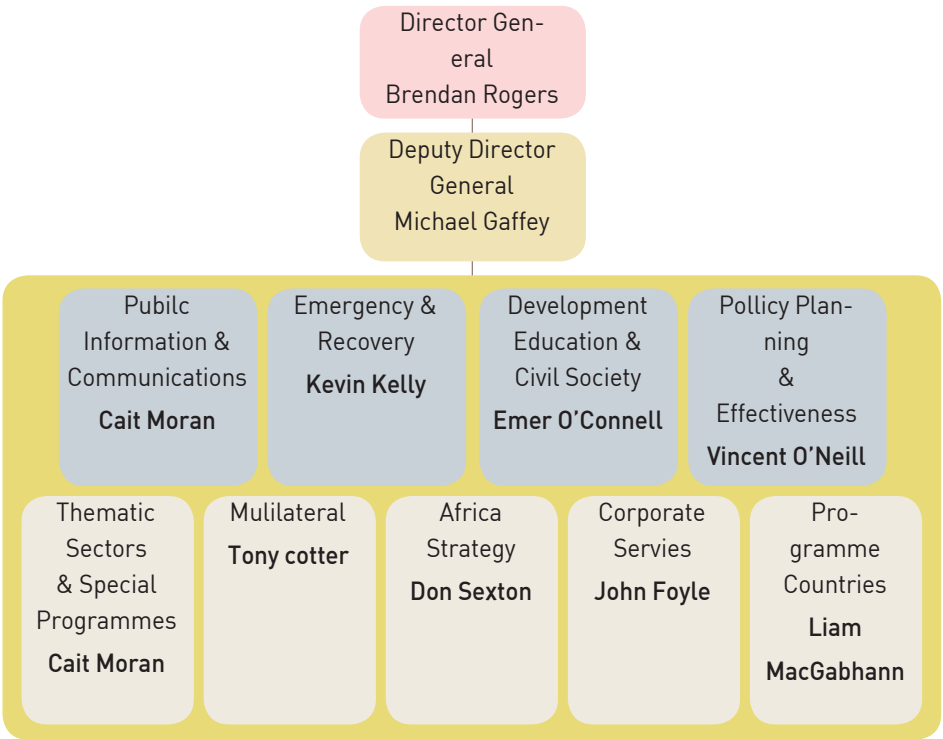


〈단순한 지식전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글로벌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 학습관.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부서가 하는 일이 상충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너

지를 내기 때문에,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는 홍보부서가 운영을 하지만, Irish Aid 본부의 개발교육부서 직원들 중 일부가 이곳에 상주하여, 홍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 나오는 표는 Irish Aid의 개발교육 관련 부서들의 역할을 담은 조직도이다. 조직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발교육과 관련된 일은 홍보부서와 개발교육부서가 모두에 배분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료 편찬 등의 미시적인 일은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며, 개발교육 정책 구상이나 유럽지역 개발교육 정책 관리, 국가차원의 개발교육 등 거시적인 일은 개발교육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Irish Aid Management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Irish Aid 조직도, 개발교육과 시민사회부서가 독립된 부서로 존재한다〉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ion		
Press & Media	Website & Communication	Centre, Schools Programme & Outreach
– TV & Radio 시리즈 "What in the World and Our World" – 언론 보도 – 언론 인터뷰 관리 – Simon Cumbers Media Fund & Simon Cumbers Student Media Fund 관리 – 기자단의 파트너 국 방문 – 언론 모니터링 등	– 웹사이트 관리 및 편집 – 브랜드 관리 – Communication 가이드 라인과 전략 수립 – Irish Aid 내부부서 정보수집 –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관리 – 연보 제작 등	–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 관리 – 일반 대중과의 소통 관리 (이벤트나 축제 기획 포함) – Our World Awards & Centre Schools Programme 관리 – 웹사이트의 Teaching & Learning 섹션 관리 – 교육 자료 제작 – 정부 교사 교육 자료 발간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ion 조직도 및 역할. 홍보부서 안에도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센터 및 학교 프로그램 팀이 존재한다. 개발교육 자료나 교사교육 자료 편찬, 세부 프로그램 관리 및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 관리 등 개발교육의 미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Development Education and Civil Society Section	
Civil Society	Development Education
– Christian Aid, Misean Cara, Concern, Self Helf Africa, VITA, World Vision 등의 NGOs와의 파트너십 관리 (프로그램 질 관리, MOU, 계약, 감사, 위기 관리 등)	– 개발교육 정책 – GENE를 포함한 유럽 개발교육 관리 – DICE, 80:20, World Wide Global Schools 등 개발교육 프로그램 관리 등

〈Development Education and Civil Society Section 조직도 및 역할. 개발교육의 정책이라든지 유럽지역 개발교육 관리, 국가적 차원의 개발교육 프로그램 관리 등 개발교육의 거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홍보부서의 Centre, School Programme & Outreach팀에 대한 설명이 특히 흥미로웠는데, 이 팀은 학교 환경에서의 개발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Irish Aid가 하는 일, 원조의 필요성,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즉 홍보부서의 Press팀이나 Website팀과는 다르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직접 만나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Agricultural Show, Farming Event'이다. 원조와 이것이 무슨 상관일까 잠시 생각했는데,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소농들의 삶, 특히 여성 농부들의 상황, 식량권, 전 세계의 식량 분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아일랜드 사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특히 아일랜드 농부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여는데, 그럴 경우 많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조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적 환경에서도 먼 미래에는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사실 원조에 있어서 농업 분야가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이성의 이유로 원조의 대다수가 도로나 댐 건설, 건물 건축 등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 말이다. 단순히 농촌경제연구원에 일하는 연구원들이나 농수산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도국의 소농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개도국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원조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ODA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원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



Irish Aid의 홍보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접근 중에서, 공감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부연 설명하겠다. Irish Aid 홍보부서장인 Padraig M. Coscair은 대중과의 소통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했다. 조직 내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중에게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도 꽤 공감이 되었다. KOICA 안에서도 일반부서가 홍보실과 일하는 방식은, 홍보가 필요할 때 개별부서가 자신들이 한 성과를 포장하여 홍보실로 보내면 홍보실이 그것을 가공하여 외부로 내보내는 식이다. 이런 일의 문제점은 일반부서의 경우 업무에 치이다보면, 외부에 홍보할 법한 좋은 성과들을 놓쳐버리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일반부서들은 홍보나 대중과의 소통이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간과하기가 쉽다. 따라서 Irish Aid의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팀이 정기적으로 개별부서와 소통하여 각 팀의 성과물을 체크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KOICA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면, KOICA와 해외원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직 내의 소통이 늘어나서 시너지가 생길 일이 비단 이뿐일까? 조직 내 소통에 힘을 쏟고 있는 Irish Aid의 노력은 실로 귀감이 되었다.

통계가 아닌 스토리



홍보부서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웠던 또 다른 점은 홍보부서의 접근방식이 통계가 아닌 스토리라는 점이었다. Padraig 부서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는 주된 방법으로 Narrative Story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면은 실제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의 전시물에도 나타난다. 내가 방문한 시점의 전시물은 Malawi의 한 마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모든 전시물이 이 마을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딱딱하고 메마른 통계수치가 아니라, Malawi 아이들과 사람들의 일과와 꿈, 어려움을 비디오와 사진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빈곤과 개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의 학습관.
말라위 작은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와 원조와 개발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우게 한다〉

발, 원조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아일랜드의 원조 정책



아일랜드 원조 정책은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므로, 여기서 잠시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유럽의 작은 국가들의 원조기관 담당자들이 가진 "환대(Hospitality)" 정신에서도 느낀 바지만, 원조 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은 일반국가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적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 추구는 원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다. 영국은 현재는 원조를 통한 상업적 · 정치적 이익 추구를 도모하지는 않지만, 원조에 있어서 세계의 리딩 국가라는 타이틀에 꽤 연연하는 편이다. 하지만 2007년에 방문한 노르웨이나 금번에 방문한 아일랜드 같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의 원조 담당 정부부처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의 생각이나 언어 전반에 NGO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도주의는 이들 국가의 원조 정책의 기반을 구성하며, 원조 제공의 가장 큰 이유가 자국의 이익

추구가 아닌 절대 빈곤퇴치, 지구환경 보호 등 공익적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정신은 이들 국가의 ODA 사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잠시 아일랜드 ODA의 스펙을 살펴보자. 2012년 아일랜드 원조의 30% 가량이 UN, 세계은행, EU 등 다자기구에 공여[14]되었으며, 전체 원조의 1/4 가량이 NGOs와 선교단체 등을 통해 공여되었다. 전체 ODA 중 14% 가량(€ 90 Million)이 긴급구호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2/3 가량이 다자기구를 통해 공여되었다. 정부를 통한 공여는 전체 ODA의 15%에 불과했다. 전체 ODA의 45%가 보건, 교육, 농업, 거버넌스와 사회 인프라 지원에 사용되었고, 양자원조의 85% 가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공여되었다. 즉, 아일랜드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권장 받는 최빈국 중심, 친빈곤적 개발이란 면에서 아주 우수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원조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국익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지 Padraig 부서장에게 물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말에 Padraig도 동일한 질문이 아일랜드에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조를 하지 않으며, 원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둔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아일랜드 원조는 100%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로 진행되며, Anti-Poverty Plan이 있는 국가에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Padraig은 이런 질문에 대해 '원조를 통한 실리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Irish Aid의 대응법이라고 설명했다.[15] 이러한 면에서 그는 아일랜드의 좋은 국민성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원조 역사 자체가 아프리카에 대한 아일랜드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시작된 만큼, 국민들이 원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따뜻한 마음에 기반을 둔 온정주의에 있다고 설명했다.

14 다자기구를 통한 공여는 원조 집행에서의 공여국의 영향력과 색깔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국익이 배제되는 원조로 평가 받는다.
15 '원조를 왜 하는가'에 대한 Irish Aid의 공식적인 대답을 부록 III에 실었다.

사실 아일랜드 행을 결정하고 나서도 그 점이 제일 궁금했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견주어 유럽의 '셀틱 타이거(Celtic Tiger : 켈트족의 호랑이)'로 불리며 농업국가에서 선진 금융 강국으로 부상했던 아일랜드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도산의 위기까지 치달은 국가에서 원조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 말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위기로 원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원조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Padraig의 대답은 놀라웠다. 실제적으로 세계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일랜드의 원조자금은 2008년 € 920 Million에서 2013년 € 623 Million로 대폭 삭감되어 ODA/GNI 비율이 0.5% 이하로 떨어졌지만,[16]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는대로, UN이 다음 UN이 제시한 ODA/GNI 0.7% 수준으로 다시 원조자금을 올릴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자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Padraig은 좋은 국민성 덕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국민성에 더해 지난 25년간 이루어진 집중적인 개발교육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역시 원조가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초당파적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의 전시관을 설명 중인 Barbara Wilson〉

반대로 그는 유럽에서도 실리 중심의 원조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스페인은 과거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했던 국가인 만큼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16 2012년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4%이다.

원조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노력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면에서 스페인은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원조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려다가 국가 이미지 자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든 시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원조 정책에 따라 그 국가의 성격을 낙인찍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미지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연성 파워(Soft Power)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정책



영국이 개발교육센터, DEA, Oxfam 등 민간시민사회가 개발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면, 아일랜드는 정부인 Irish Aid가 개발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다. 이는 아일랜드 정부차원에서 가지는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도 상통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Irish Aid 백서에 "정부는 아일랜드의 모든 국민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개발교육을 원조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rish Aid는 개발교육과 관련한 중기전략 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교육을 체



〈더블린 중앙을 관통하는 리피강.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는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에 IDEA는 남쪽지역에 위치해 있다〉

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먼저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4~2007」을 발간하여, 초등교육 내의 개발교육 전파에 힘써 왔으며,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7~2011」에서는 중등교육 내의 개발교육 전파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교육의 정책 방향도 분명하며 선진화되어 있는데, 먼저 아일랜드 개발교육은 "개발교육 ⇨ 양질의 원조 ⇨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로 이어지는 장기적 목표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라는 단기적 목표를 벗어난 큰 그림에서 개발교육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15페이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한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이의 이행계획을 가지고 개발교육에 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Camel에게 개발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사업 참여자 양성이나 ODA에 대한 대국민의 지지라는 협소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발교육을 잘해야 양질의 원조를 할 수 있고, 원조를 잘해야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즉, 개발교육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적 시야에 갇혀있지 않고 전 지구적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 경제 상황에 흔들림 없이 개발교육과 원조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면에서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역시 영국의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을 보면, 개발 정책, 공교육 정책, 개발교육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교육과 민간교육 Two-track 모두로 적극적인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은 정부차원에서 큰 지지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정책과 전략 수준이 고도로 전문화 · 체계화되어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민간을 통한 개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17] 전략적

17 물론 그간 민간단체를 통한 개발교육에 상당수의 자금을 공여해왔음에도, 현재에도 민간단체들을 위해 연간 25만 유로 (한화 3억 7천만 원가량)를 개발 NGOs로 공여하고 있다.

으로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Irish Aid가 개발교육을 위해 연간 공여하는 자금은 € 3.5 Million인데, 이 중 연간 € 1 Million을 Comprehensive Schools Program for Secondary Student에 할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아일랜드 700여 개 중등학교의 50~70%까지 개발교육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타깃이 중등학교 학생인 이유를 묻자, 초등학교는 이미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의 전파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실제적으로도 Irish Aid는 개발교육 중기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4~2007 보고서의 타깃은 아일랜드 전 사범대학 교사들에게 개발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중기 전략에 의거하여 Irish Aid의 개발교육팀은 미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범대학 학생들이 모두 개발교육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 2007~2011년 전략은 중등학교의 개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타깃을 중등교사로 옮긴 것 이외에도 다른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사범대학 학생들이 Irish Aid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제는 Irish Aid 측에서 사범대학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확실히 아일랜드의 개발교육의 수준은 영국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공교육 체계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 유럽은 EU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아일랜드도 기존의 국가 전체가 공유하던 커리큘럼 제도를 없애고, 각 학교가 자기들의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의 공교육의 지역화(Localization)를 겪고 있다. 이것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도 개발교육의 공교육 내 전파의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개발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Irish Aid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발교육 시스템을 이루기까지 3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강점은 역시 타국가의 성공과 실

패 사례를 보며 성공 사례를 습득하고, 실패 사례는 피하면서 이들의 사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다.

아일랜드 개발교육의 전략목표

교사와 개발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부문, NGOs, 그리고 시민사회기관과 협력하여 개발교육이 아일랜드 전역의 청중들에게 닿도록 한다.

아일랜드 개발교육의 세부목표(Component Objectives)

① 개발교육과 공교육, 시민 정책과 개발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유럽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교육에서의 우수 사례를 지원한다.
② 개발교육가와 그들이 일하는 기관들에 지원 강화를 통해, 양질의 개발교육을 아일랜드에 제공한다.
③ 개발교육을 아일랜드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에 통합시킨다.
④ 개발교육 활동이 국민의 인지 및 지구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아일랜드의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지속가능성, 자율성, Active Learning 그리고 M&E의 강화



유럽 지역에서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간에 왕성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던 주된 이유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정책의 흐름이다. 두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교육 정책이 양국의 개발교육 역사나 행정부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양국 개발교육의 주된 트렌드의 핵심을 네 가지 꼽는다면 지속가능성, 자율성, Active Learning과 M&E가 아닐까 싶다.

① 지속가능성과 자율성

먼저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의 강조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2000년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민관협력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할

뿐 아니라, 부족한 원조자금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도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다. 개발교육의 경우도 정부가 끝도 없이 원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다. 즉 계속해서 개발교육을 전달하는 기관들에게 원조자금을 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역시 2012~2015 개발교육전략 계획에서 기존의 개발교육기관에의 직접 펀딩 체제를 거두고 지역사회기관, 학교, 대학 등에 펀드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들이 개발교육기관으로부터 개발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교육의 자금 출처가 원조기관이 아닌 개별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양 국가의 공통적인 개발교육 정책인 것이다.

개별 학교의 자율성 강조 부분도 양 국가에서 동일하게 시도되는 변화이다. 즉 이전에는 필수교육과정에 개발교육 관련 과정을 넣어서 이를 강제적으로 가르치게 했던 데 반해, 이제는 이를 필요로 하는 교사와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우선순위 분야를 강제하지 않으며 8개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각 학교가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② Active Learning과 M&E의 강화

Active Learning의 경우는 이미 영국은 오랜 역사로 인해서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교육부의 특이한 성격상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개발교육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다. 즉 단순한 수동적 지식 주입 방식이 아닌, 능동적인 습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의 개발교육도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으로만 배운 학습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Active Learning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이는 아일랜드 개발교육 전반의 방법론으로 활용되며,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디오를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의 구성원이 되어보면서 배운 바

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공정무역 상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등 배운 바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M&E의 중요성이 논의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개발교육 분야에서까지 M&E가 강조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니, 정말 M&E는 이 시대 국제개발협력의 초두의 화제란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Irish Aid의 경우는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를 개발하여, 개발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교육평가의 방식이 Supply 측면에서 Demand 측면으로 전향된 것도 흥미롭다. 이전의 교육평가는 Supply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개설 수, 교육 자료 제공 수를 측정하였는데 반해, 최근 새로 시행되는 교육평가는 Demand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통한 수강생의 변화 및 길게는 개발교육이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성과 중심적인 사업운영방식이 개발사업 뿐 아니라 개발교육 분야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아일랜드 개발교육 분야도 성과 중심관리(Result Based Management, RBM), PDM, M&E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정을 운영 및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자율성의 강화 부분에서 말하였듯이, 8개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자유롭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정해진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M&E를 위한 지표(Indicator)를 스스로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Active Learning Methodology는 M&E에도 적용된다. 즉 교육과정을 평가할 때 그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수강생의 개발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교육을 통하여 수강생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개발교육을 위한 국경을 넘어선 파트너십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거버넌스 체제도 영국과 비슷하다. 먼저 Irish Aid가 개발교육펀드를 개발교육기관들에 제공함으로 개발교육사업을 장려하고 있고, 개발교육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합체인 아일랜드 개발교육협의체(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EA)가 개발교육의 중심체 역할을 맡고 있으며, Concern International 등의 다양한 NGO들이 개발교육을 실행한다.

개발교육협의체인 IDEA는 200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90여 개의 기관과 개인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IDEA는 1) 개발교육의 우수 사례 공유 2) 개발교육가 역량강화 3) 개발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개발교육가 및 기관지원 4) 개발교육 관련 정책과 옹호 5)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발교육가 연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된 역할은 아일랜드 개발교육기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기능이다. IDEA의 펀딩 창구는 Irish Aid와 EU인데, Irish Aid로부터 하나의 펀드를, EU로부터 2개의 펀드를 받고 있다. IDEA는 이 펀드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개발교육기관들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있다.

IDEA의 프로그램 중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Development Education Database of Training(DE DoT)라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아일랜드 개발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이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무척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교육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 나조차도 따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최적의 시간에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를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 간 협업이 주는 시너지와 아름다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게 된 부분이었다.

국내의 잘 조직된 파트너십 이상으로 아일랜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양질의 개발교육을 위해 국외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아일랜드와 영국 개발교육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의 선두국가라는 자긍심 때문에, 정

부차원의 개발교육 분야에서는 타국과의 협업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DFID 방문 시 타 유럽 국가와의 개발교육에 대한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영국은 리딩 국가이므로 타국에서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시에는 응하지만 같이 무엇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었다. 즉 영국의 경우는 TLCL, IOE, DEA 등의 개발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이 EU 국가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DFID와 같은 정부차원의 협력은 미약하다. 민간단체들의 경우도 특히 지난 몇 년 간의 DAF 자금 덕분에, 영국의 개발교육기관이 EU 펀드에 기댈 필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EU와의 협력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일랜드 같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부터 개발교육과 관련해서 타 국가들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 방문 시기 유럽의 개발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EU 국가들은 개발교육에 관한 정책 및 학술 컨퍼런스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EU 펀드 또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는 EU 국가들의 젊은 세대들 간에 국제개발 및 세계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길러주게 되고,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의제 설정 및 결정의 지대한 역할을 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점들을 배워가며, 왜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 출신 인재들이 국제기구에서 눈부시게 활약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는 타국에서 개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가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데 반해 아일랜드의 경우는, 개발교육을 잘하고 있는 국가로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을 꼽았다. 노르웨이가 개발교육을 잘하고 있는 건 2007년에 노르웨이 개발교육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핀란드와 폴란드, 스페인이 선두적인 그룹이라는 것은 금번 출장을 통해서 처음 접한 사실이었다. 스페인은 이전에 성 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을 공부할 때도 안달루시아 지역이 선도적으로 이를 잘 실천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개발교육도 잘 하고 있다니 신기했다. 달리 생각해보면 유구한 식민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영국처럼 국제개발 및 개발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핀란드와 폴란드는 개발교육 관련 유럽 컨퍼런스가 개최될 시, 개발 관련 부처 장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도

함께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직 한국으로써는 요원한 이야기지만, 미래에는 한국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출장을 오기 전에도 차세대 교육을 생각하면서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지만, 출장 와서 관련 업무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부와 개발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일랜드 개발교육 프로그램

1) Our World Irish Aid Awards Project

8세~12세 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MDGs 등의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를 심사하여 상을 주는 제도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의 Theme은 "Education for All the World's Children"이다. 연간 450개 학교가 참가 신청을 하여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지역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웹사이트 : ourworldirishaidawards.ie/teachers

2)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 개발교육 프로그램

현재 전시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마을 아이들의 삶을 비디오로 시청 ⇨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희망 등을 담은 판넬 읽기 ⇨ 마을 구성원이 되어 원조자금 공급, 수해, 가뭄 등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에 따라 가계 소득이 변화를 경험해 보는 게임 체험 ⇨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고 소통한다.

* Irish Aid Volunteering and Information Centre :
KOICA의 지구촌 체험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나 지구촌 지역 및 문화 이해가 중심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난한 마을의 삶 체험이 주요 테마라는 면에서 홍보보다는 개발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일반국민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Irish Aid 본부는 리머릭에 위치하고 있으나, Irish Aid Volunteering Centre는 더블린 시내 중심가인 오코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 Education(DICE) Projec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개발교육이 아닌 교사교육을 통한 TOT 방식의 개발교육이다. 아일랜드의 사범대학의 교사교육과정의 주요한 요소로 개발과 다문화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아일랜드의 5개 사범대학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4) Simon Cumbers Media Fund

국제사회 이슈를 다루다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된 아일랜드 언론인 Simon Cumbers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로 미디어가 더 효과적으로 양질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년에 2번(여름, 겨울) 개발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송, 언론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부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의 한국 적용 및 나아갈 길



1부와 2부에서 살펴본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기관 및 학교 이야기, 정책과 실행 그리고 교훈을 바탕으로 3부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을 어떻게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개발교육에 대한 장 · 단기적 로드맵 마련



영국과 아일랜드는 구체적인 개발교육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개발교육은 아직까지 중 · 장기적 정책, 전략, 실행체계,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UN과 KOICA 소개, 글로벌 이슈 등 개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개발교육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행해지는 개발교육도 기관 홍보나 기부금 증액을 위한 방편으로 개발교육이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인지제고인 경우도, 국내 및 국제사회의 개발 정책과 연동된 전략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개설이라는 일회성 지원으로 시행되어져 왔다.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 역시 개발교육의 성장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국이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교육 활성화 단계 이전에 개발교육의 국가적인 정책, 전략, 실행체계,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교육의 대대적인 시행 이전에 영국 DFID나 Irish Aid 등 선진 공여국의 모델을 본 따 한국 개발교육의 정책, 전략, 실행체계,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과 같은 큰 그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과 평가의 경우, 영국의 DAF 펀딩이 종료된 주 이유 중 하나가 개발교육 사업 평가 부재로 인한 개발교육의 효과성을 증빙할 자료가 없었던 점이었음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 로드맵을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체계적인 개발교육의 시행을 위한 양질의 연구에 대한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 대학 IOE 내의 DERC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양질의 개발교육 정책과 전략에 관한 연구 저널 발간과 학회 개최를 장려할 것을 「Irish Aid 2007~2011 개발교육 전략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 역시 JICA에서 운영하는 개발교육연구센터와 민간차원의 개발교육협의회가 있다. 이를 이용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시[18]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개발교육의 초창기이나 폭발적인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면적인 개발교육 실시 이전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방면의 연구 펀드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개발교육을 위한 정책, 전략, 실행,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개발교육에 대한 예산확보 및 확대



2009년 KOICA를 통해서 국제 개발협력 인지제고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2010년 ODA 교육원이 개원되어 한국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한국의 개발교육에 대한 인지수준과 예산 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영국은 개발교육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Tony Blair 총리의 노동당 체제에서 DAF로만 연간 최대 £24 Million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개발교육에 제공된 EU와 British Council의 펀드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개발교육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십

18 최민경.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년간 풀뿌리 차원의 자생적인 노력과 십여 년간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개발교육 정착화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위기가 찾아와 원조 제공이 어려운 지금도 GLP란 이름으로 연간 £4 Million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국이 개발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면이다. 또한 British Council과 함께 하는「Connecting Classroom」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따로 3년간 £17 Million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전히 DFID가 개발교육에 사용하는 금액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아일랜드도 국가 도산의 위기에까지 처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3.5 Million를 정부차원에서 개발교육 관련 사업에 공여함으로써 개발교육에 대한 높은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 £3.5 Million 외에 EU 등 다른 루트로 제공되는 자금을 더한다면 역시 상당한 금액이 개발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발교육의 초창기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및 ODA에 대한 일반 국민과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 개발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KOICA ODA 교육원의 연간 예산은 18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대학교 이해증진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5.6억 원에 불과하다. 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거의 모든 강의는 신청자가 많아 수강 정원을 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이런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차세대 ODA 특강, 교원 연수, 차세대 대상 교재 발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을 합쳐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KOICA ODA교육원 등 우리나라 개발교육 관련 기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민–관 합동 통합적, 유기적 협력 강화



영국과 아일랜드는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개발교육과 관련한 범 부처, 그리고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일한다. 반

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 교육은 정부, 민간단체(NGO), 학계,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NGO들의 경우도 기관 간 협력 및 소통의 창구가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한 개발교육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협의 및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예산 지원 등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성 및 현장성이 뒷받침되고 학계와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연구 및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발교육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부처 및 기관들의 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의 개발교육 협조체계〉

먼저 국제 개발협력 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부, 외교부(KOICA 포함),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관(民官)합동 "개발교육 위원회 "(가칭) 등의 창설을 통해 국가 전체 차원의 정책 수립과 교육시행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은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아동교육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등의 정부기관과, 개발교육협의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 Oxfam 등의 민간단체가 함께 국제개발 분야 및 글로벌 시민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교육을 왕성하게

실시[19]하고 있어 개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4. 국내외 개발교육 파트너십 강화



파트너십 강화는 개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현격히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 분야에서 최근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화두이며 이는 개발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개발교육 분야의 선진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습득 ·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유럽 내 개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등 국가들의 개발교육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개발교육 분야 후발 주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은 이를 배워가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타국과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개발교육에 관련 있는 기관간 교류협력 및 파트너십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국과 아일랜드[20] 등의 유럽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발교육 기관 외에도 개발교육을 실시하는 NGO, 연구소, 학교 등의 연합체로서 '개발교육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다. 한국 역시 위에서 소개한 개발교육협의회(가칭) 등을 통하여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가 풀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활발한 개발교육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9 Developing the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DEA), The global dimension in action(QCA)
20 영국의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DEA), 아일랜드의 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IDEA)

5.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개발교육 확산



영국과 아일랜드의 활성화된 개발교육에는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개발교육 펀드'의 역할이 컸다. 영국의 DAF는 익히 잘 알려진 지원 프로그램이며 아일랜드 역시 「Development Education Grants Scheme」이란 이름으로 개발교육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에서 2010년 1억 7천만 원을 12개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다양한 개발교육 활동을 장려하였으나 이는 1회에 그쳐 장기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가 없었다. 영국 DAF의 경우 민간단체들은 개발교육사업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펀드를 받을 수 있으며, GLP의 경우는 5개년 지원 프로젝트이다. 양질의 산출물과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펀드 제공이 필수적이다. 단, 선진공여국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PDM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조건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시행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개발교육을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행해 왔으나, 원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도 민간부문 개발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Two-Track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시행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교과서 및 교과과정에 국제개발 및 KOICA 등 국제개발 기관에 관한 내용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처럼 기존의 영어와 사회

교과목 외 수학, 지리 등 다양한 교과목에 개발교육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초 · 중 · 고등학교 내 개설된 국제개발 및 ODA에 특화된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이러한 동아리 설립을 장려하는 방안이 있고, 경제학교와 시민학교 같은 방식으로 'ODA 학교', '글로벌 시민학교' 등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개발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 교과서편찬위원회, 개별학교 등의 유기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7. 교사 대상의 개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강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최근의 개발교육 정책은 교사교육으로 수렴되고 있다. KOICA ODA교육원은 2012년 처음으로 교사 특별교육을 개설하고, 2013년도부터 교원연수 학점 부여 과정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회 과정의 경우 교원연수 학점 등의 혜택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정원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2년 연 2회 개설되던 과정을 2013년도부터 상 · 하반기 각 2회씩 연 4회로 확장 개설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교사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충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발NGOs 및 KCOC에서 진행하는 교원연수 과정과 ODA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들의 국제 개발협력 현장 방문은 많은 선진 공여국에서 활용하고있는 방안으로 추천할 만하다. 기존에 KOICA 홍보실에서 진행하던 초 · 중 · 고 글짓기 대회 수상자와 교사의 국제 개발협력 현장방문 사업을 기존의 교원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 개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 영어 교과목

의 교재에 실려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이러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ODA, KOICA, 개발 NGOs, 국제기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 대상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전략적으로 사범대 및 교대, 교육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 과목과 개발교육 교수법 과정을 개설하고, 이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이 추후에 학생들에게 개발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8. 다양한 매체와 컨퍼런스를 활용한 개발교육의 확산



영국과 아일랜드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적용사항은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매체와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개발교육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이나 NGO를 통한 개발교육의 전파 외에도, 다양한 매체와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의 One World Media Fund와 아일랜드의 Simon Cumbers Media Fund는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최근「KOICA의 꿈」이란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KOICA와 해외 봉사단원의 삶을 알리게 된 것은 홍보의 주요한 매체로 방송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라 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위에 소개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펀드처럼 개발 관련 언론 · 방송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이슈 자체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국내외 개발교육 컨퍼런스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개발교육과 관련한 정보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우리도 국내 개발교육 컨퍼런스 개최 및 국외 개발교육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해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및 교재, 교수법 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개발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기관별 우수 사례와 관련 교재, 정보, 강사를공유하여 개발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 및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외 개발교육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서는 선진국 개발교육 최신 동향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사례를 통해 한국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시해 보았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에 적용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데도 우리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수백년을 통하여 이룩한 경제성장을 수십년에 이룩한 경험이 있으며, 개발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겪은 타국가 사례를 손에 쥐고 있다는 면에서 훨씬 좋은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개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갈 때, 머지않아 우리 역시 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개발교육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백년지대계'라 하였으니 개발교육은 지구촌 시대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최대의 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나와 개발교육이 처음 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별 ODA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국가마다 원조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해외탐방 장학금 제도에 지원하고 영국과 노르웨이의 원조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양질의 원조의 기반이 되는 "개발교육"이란 개념과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이 방문을 통하여, 당시 한국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던 개발교육이 선진원조국 내에서는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이것이 이들 국가의 원조의 성격을 규명하며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방문한 영국과 노르웨이 모두 개발교육 시스템이 잘 발전된 나라였고, 그중 영국은 DAF라는 개발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한 개발 NGO인 Oxfam의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영국 공교육의 커리큘럼 내에서 활용될 정도로 영국 아이들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UN의 초대 사무총장 Trygve Lie를 배출한 만큼 UN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United Nations Association(UNA)라는 개발교육 기관을 통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국제사회의 이슈를 자국 이슈처럼 가깝게 배우는 UN학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UN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에 참여한 여성 관련 이슈 연례 장관 회의에서 대다수의 국가별 대표가 여성이었던 데 반해 노르웨이 대표가 남성이었던 점, 그리고 그가 그 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 관련 이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 평등 이슈에 남성 대표가 참여 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나라가 얼마나 성 평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그리고 그 나라의 성 평등 수준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2007년의 노르웨이 방문은 이러한 면에서 왜 노르웨이가 UN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주요 참여자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간이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배운 바를 글로 써서 「KOICA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KOICA 총재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연이 되어 KOICA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함께 작업한 일반인용 국제개발협력 교재인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1부를 쓰신 이상백 과장님과의 인연이다. 과장님은 내가 2007년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접한 개발교육 관련 사업을 KOICA에서 처음 담당하신 분이시고, 과장님이 맡으신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나는 「국제개발협력 입문」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 그 책을 마무리 지은 뒤 국제개발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미국 유학을 떠났을 때, KOICA에서는 대학 및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인지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2010년 KOICA의 ODA교육원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친 내가 운명처럼 ODA교육원에 들어와 과장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개발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후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을 때, 한 폭의 모자이크와 같이 짜인 거짓말 같은 우연에 정말 신기함을 느꼈다. 이런 짜릿함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 보너스로 얻게 되는 선물이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과장님이 다녀오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개발교육에 대한 고민을 내가 이어받아, 2013년에 두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보낸 짧다면 짧은 5일은 2007년에 내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개발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준 시간이었으며, 한국 개발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 시간이었다.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한국이 양질의 원조를 할 수 있게끔 할까?"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지만, 개발교육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지금은 개발

교육 자체가 한국과 세계에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UN 인턴 시절 내가 봤던 국제회의의 의제를 끌어가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유럽 및 미국의 선진국들, 아니면 개도국의 연합체인 G-77이었다. 반대로 한국은 대다수의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았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외교관의 숫자로 회의 자체를 참석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언어의 장벽이란 문제가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요한 원인은 개발 이슈를 어려서부터 습득해 왔으며 이를 평생의 화두로 잡고 고민해 온 이들의 열정과 지식을, 이제야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겨우 배워가고 있는 우리가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다른 DAC 공여국과는 다르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고, 최빈국 수준의 가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다른 나라를 착취하지 않고 순수히 개발을 이룬 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선진공여국에게는 원조가 효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으로, 개도국에게는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준 국가로 온 세계가 한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반면, 이런 기적 이면에는 우리가 가진 많은 상처들이 존재한다. OECD 국가 내 최고의 자살률, 최저치를 기록한 초등학생 행복지수, 이와 반대로 정점을 찍은 청소년 흡연율, 최저의 출산율 등 빠른 경제 개발이 낳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무작위로 전수해 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바르고 도움이 되는 개발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이라는 좁은 테두리에 갇혀 고민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한국의 어린 세대들과 청춘들에게, 개발교육이란 어쩌면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를 힐링(Healing)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희망과 소명을 가지고 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이며,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기도 하다. 이 책의 1부인 이상백 과장님의 원고를 처음 보았을 때, 묵히기 아까운 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소명을 같이 이루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하여, 이를 책으로 내는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행히 덕분에 단순한 결과 보고서로 끝날 뻔했던 나의 이야기도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되어 기쁘다. 바라건대, 이 글을 통해 또 누군가가 한국 개발교육에 대한 소명을 갖고 함께 모자이크를 그려 나가게 되는데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2013.10월 저자 박수연



부록 1 해외 개발교육기관 개요

1. 영국

1)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 소재 : 영국 런던

• 기관 성격 : 국제개발전담 정부부처

• 기관 개관

– 개발 우호적 정책으로 국제개발의 황금기를 구가한 Tony Blair 총리 하의 노동당 정부 시절 독립부처로 승격됨. 개발교육의 확산을 위해 1998년부터 DAF를 제공하여, 개발 NGOs, 개발교육센터, 학계 등의 개발교육을 장려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역할

– 개발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고 개발교육사업을 장려하는 펀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님

– DAF를 구성하여, Major Grants는 TLCL, Mini Grants는 Think Global을 통해 공여함(1999년~2009년)

– 2013년 9월부터 Global Learning Programme(GLP)을 발족하여 5년간 £20 Million 제공 예정. 그 외 다양한 개발교육펀드 제공

• 웹사이트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

2) 런던 대학 교육연구소 (Institute of Education, London University)

• 소재 : 영국 런던

• 기관 성격 : 대학 부설 연구소

• 기관 개관

– 런던 대학 내 위치한 교육연구소. 2006년 부속기관으로 개발교육연구센터(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DERC)를 설립하였으며, 센터장인 Dr.

Douglas Bourn은 개발교육 기관들의 협의체인 DEA 설립, 런던 대학 내 개발교육 석사(M.A)과정 개설 등 영국 내 개발교육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역할

– 영국 및 DAC 국가들의 개발교육에 대한 연구 진행, 관련연구 보고서 및 학술 저널 발간

– 개발교육과 관련한 석사과정 및 싱가포르, 중국 등에 장거리 원격 교육 개설 및 운영

– 사회, 지리, 역사 등 개발교육 관련 과목 외에 수학, 과학, 의학 등 비전통적 분야에 개발교육을 접목시키는 연구수행

– 개발교육 컨퍼런스 주최

– 2013년부터 시작되는 DAF의 후속 프로그램인 DFID의 Global Learning Programme(GLP) 시행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교육 평가 부문 총괄

• 웹사이트 : http://www.ioe.ac.uk/research/150.html

– IOE의 동영상을 통해서 개발교육과 관련된 Douglas 교수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음

– 2012년 1월 23일에 개최된 개발교육 관련 컨퍼런스의 정보도 얻을 수 있음

3) Triple Line Consulting Ltd.(TLCL)

• 소재 : 영국 런던

• 기관 성격 : 국제개발 컨설팅 회사

• 기관 개관

– EC, DFID, WFP 등의 펀드를 받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시행하는 국제개발 컨설팅 회사. 민간부문 · 사회 · 농업개발 사업설계 및 평가, 개발기관 역량강화, 원조 조화, 개발인지자금(Development Awareness Fund, DAF) 관리 등 다양한 업무수행

• 역할

– DFID의 DAF 중 Major Grants를 담당하여 이를 시행하는 개발교육기관에 분배

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함. 특히 2010년 DAF 종료 후 2010~2011년간 DAF 평가를 시행하였음

※ DAF 중 Mini Grants는 Think Global(구(舊)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DEA))이 담당함

• 웹사이트: http://www.tripleline.com/

4) Oxfam

• 소재 : 영국 런던

• 기관 성격 : 국제개발 NGO

• 기관 개관

– 전 세계 94개국에서 국제개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6,200명의 정규직과 21,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보유한 영국 최대의 국제개발 NGOs임. 1950년대 개발교육을 시작하여 개발교육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

• 역할

– Catalogue for School이라는 개발교육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매년 35,000부 발행하여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개발교육 진행

– 커리큘럼, 교육 자료 제작 및 제공

– School Speaker 제도를 통한 개발교육 및 교사교육 제공

– GLP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 참여

• 웹사이트 : https://www.oxfam.org.uk/education/

2. 아일랜드

1) Irish Aid

• 소재 : 아일랜드 더블린

• 기관 성격 : 국제개발전담 정부기관

• 기관 개관

– 아일랜드는 국제개발시행 전담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통상부 내의 개발협력국인 Irish Aid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아일랜드는 개발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9개의 주요 부서 중 하나로 Development Education & Civil Society가 존재함. Irish Aid는 지방에 존재하는 반면, 개발교육의 홍보적인 면을 중요시하여 개발교육부서의 인원이 파견되어 더블린의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에 상주하여 실행 업무 담당

• 역할

– 아일랜드 개발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고 개발교육사업을 장려하는 펀드 제공

–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를 통해 대국민 및 차세대 개발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아일랜드 개발교육연합(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EA)

• 소재 : 아일랜드 더블린

• 기관 성격 : 개발교육 기관 간 협의체

• 기관 개관

– 아일랜드의 개발교육과 관련된 네트워크 협의체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90여 개의 개발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역할

– 개발교육 기관의 조직 역량 강화

– 개발교육 실무자들에게 개발교육 관련 최신 정보와 기법 제공

– 개발교육부문 내와 그 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전략적 네트워킹지원

– 개발교육사업의 질 향상 및 개발교육사업의 영향력 평가

• 웹사이트 : http://www.ideaonline.ie/

부록 2 개발교육 자료 및 정보 관련 웹사이트

1. 영국의 개발교육 자료 및 정보 관련 웹사이트

(1) Oxfam 개발교육 웹사이트

-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교육 자료와 정보를 보유한 Oxfam의 웹사이트
- http://www.oxfam.org.uk/education

① Resources : 개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이별, 주제별로 제공됨
http://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

② School Projects : 학교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음
http://www.oxfam.org.uk/education/school-projects

③ 교사 가이드 관련 자료
www.oxfam.org.uk/guides

④ 개발교육 정책
http://www.oxfam.org.uk/education/policy/education2012

⑤ Big Picture : 교사용 개발교육 잡지. 1년에 세 번(봄, 여름, 가을), MDGs, 식량, 여아교육, 식수, 기후변화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발행됨.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교육 자료, 행사 안내 정보가 들어 있음
http://www.oxfam.org.uk/bigpicture

(2) Think Global(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개발교육 웹사이트

- 영국 개발교육기관 협의체인 Think Global이 구축한 사이트로,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www.globaldimension.org.uk

(3) Centre for Global Education 개발교육 웹사이트

- orthern Ireland에서 DAF의 Mini Grants를 담당하는 기관인 Centre for Global Education이 구축한 개발교육과 관련한 자료, 이벤트,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이트
- www.centreforglobaleducation.com

(4)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of Scotland 웹사이트

- 스코틀랜드의 개발교육기관 협의체인 IDEAS가 구축한 사이트로, 다양한 개발교육 정보와 자료 보유
- http://www.ideas-forum.org.uk

(5) Cyfanfyd 웹사이트

- Wales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시민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개발교육기관 협의체인 Cyfanfyd가 구축한 사이트로, 다양한 개발교육 정보들 보유
- http://www.cyfanfyd.org.uk/

(6) World Education Development Group 웹사이트

- Kent에 위치한 개발교육센터로,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교육 커리큘럼과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음
- http://www.wedg.org.uk/index.php

(7) Global Link 웹사이트

- 1993년 4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개발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잉글랜드 북서부의 6개 개발교육센터 중 하나임
- http://www.globallink.org.uk/

2. 아일랜드의 개발교육 자료 및 정보 관련 웹사이트

(1) DevelopmentEducation.ie

- 개발교육과 관련한 자료 및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 특히 이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80:20 책은 Irish Aid가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최고의 개발교육 책으로, 저명한 여러 명의 저자들이 환경, 인간개발, 인권, 보건, 분쟁 등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집필한 책임
- http://www.developmenteducation.ie/

(2) Development Education Database of Training(DE DoT)

- 아일랜드 개발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종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
- http://www.ideaonline.ie/trainings

3. 유럽의 개발교육 자료 및 정보 관련 웹사이트

(1) DEEEP(Developing Europeans' Engagement for the Eradication of Global Poverty) 웹사이트

- EU의 펀드를 받아 시행되는 CONCORD의 개발인지강화프로그램 사이트. 유럽 지역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http://www.deeep.org/

(2)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웹사이트

- EU 국가들의 Global Education의 국가적 책무를 지닌 부처나 기관간의 네트워크. 2001년 6개 국가의 6개 국가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1개 국가의 31개 부처,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음. Global Education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평가, 출판물들의 정보 열람이 가능함
- HYPERLINK "http//www.gene.eu/about-gene/"http://www.gene.eu/about-gene/

부록 3 Irish Aid의 '우리는 왜 원조를 하는가?'

1. 아일랜드의 원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결핍 상황은 심지어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25(한화 약 1,800원)보다 더 적은 돈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빈곤함 속에서 살고 있다.

2. 우리 자신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일련의 심각한 기근과 재해를 겪어왔다. 오늘날,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충분한 음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저가의 해결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3. 우리의 원조는 철저하게 빈곤과 기아 퇴치, 영유아 보건과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 그리고 가족들의 식량을 먹을 권리와 깨끗한 식수를 마실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아프리카에서는 10년 전보다 4천 6백만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5. 아일랜드가 지원하는 잘 고안되고 광범위하게 퍼진 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10년 전보다 1천 5백만 명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다.

6.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원조 프로그램에 전념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일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속해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보유한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아일랜드 국민이 지닌 정의, 자비심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타고난 성품의 자연스런 발로이다.

7. 아일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우리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며,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과 정당들의 초당파적인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의 가장 가난한 특정 지역의 개발에 제대로 된 그리고 지속적인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 내에서의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8. 매일매일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은 생명을 살리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가난한 특정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주고 있다.

9.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하는 국가들의 제도와 경제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몇 년 안에 우리의 시장이 되고 우리의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파트너로써 우리가 개발도상국들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을 돕는 우리의 자신의 이익이 된다.

10.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의 상품들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평화와 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좀 더 통합된 방법을 취하게 할 것이다.

11. 개도국에서 일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제도와 체계는 미약하며, 역량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필요는 상당하며,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역량을 처음으로 보유한 세대일 것이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도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12. 우리는 원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는 건전한 정책과 굿 거버넌스와 연동되어야만 한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수가 늘었고, 더 많은 영유아들이 질병에 면역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수와 기초 보건이 제공되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들이 제공되는 등의 엄청나게 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있다.

13.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전에 달성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경제적 잠재력, 자연 광물,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부유하다. 지난 5년간 많은 국가들이 7%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IMF에 따르면, 이 대륙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5%를 넘을 것으로 예견된다.

14. 개발 원조는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원조는 아프리카로 공여되는 전체 재원 중에서 점점 더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안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성공의 하나의 징표이며, 아일랜드는 이 일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15. 우리의 원조 프로그램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지구적 도전거리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세계의 하나의 작은 국가로써의 아일랜드의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약어집

DEAC	Development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CAFOD	The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OI	Central Office Information
CPD	Contin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SOs	Civil Society aOrganizations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AF	Development Awareness Fund
DCSF	Department Children, School and Family
DEA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C	Development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DEC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DE DoT	Development Education Database of Training
DEEEP	Developing Europeans' Engagement for the Eradication of Global Poverty
DEP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ERC	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ICE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 Education
DSA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EES	Enabling Effective Support Programme
GLP	Global Learning Programme
GNI	Gross National Income
HLP	High Level Panel
ICTU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IDEA	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INTO	Irish National Teachers' Organization
IOE	Institute of Education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E	Monitoring & Evaluatio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ADEC	The National Development Company
NCA	Norwegian Church Association
NCCA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DE	National Committee Development Education
NGO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YCI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WNNE	One World Network North East
PIC	Publ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ion
PPA	Program Partnership Agreement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QCA	Qualifications Curriculum Agency
RBM	Result Based Management
RAPT	Refugee Action Project
SARI	Sport Against Racism Ireland
SEF	Self Evaluation Framework
TLCL	Triple Line Consulting Ltd.
TOT	Training of Trainers
TOWC	Teesworld One World Center
UNA	United Nations Association

인 쇄 2013년 10월 30일
발 행 2013년 11월 2일

발행인 김영목
발행처 KOICA ODA교육원
주 소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http://idea.koica.go.kr
전 화 031-740-0500

업무자료 ODA교육원. 2013-02-216
이 책의 저작권은 ⓒ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발간에 참여해주신 분들

편집위원장

두정수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편집위원

김진오 한국국제협력단 역량개발부 부장, ODA교육원 원장
김준모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팀장
손성일 한국국제협력단 (전) ODA교육원 팀장, (현) 월드프렌즈총괄팀장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전문관

집 필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전략기획팀 과장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전문관

